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ultural Mediation Experience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structors  
for Married Migrant Women

2021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김 순 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ultural Mediation Experience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structors  
for Married Migrant Women

2021년 2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김순혜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김순혜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1년 2월

주심

---

부심

---

위원

---

## 국문초록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김 순 혜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가 가속되면서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주의 국제화 및 세계화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부터 이주민의 증가가 본격화되었으며 우리나라 인구구성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우리 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이해로의 인식개선과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결혼이주여성은 내국인과 이주민의 중간매개자이자 소통자로서 이주민들의 적응은 물론 내국인들의 타 문화적 수용성과 다문화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책임자이다. 따라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며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지역사회에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다문화 감수성 증진 및 문화매개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다문화사회통합 매개체 역할로서 인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한국 문화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과 강사로

서의 자존감을 갖기 위해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기관별 교육시간의 차이와 교육내용의 중복 등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 강사양성과정 이후 실질적인 교육 활동과 연결되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는 강사가 많다. 이는 교육시스템의 문제와 강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통일성있는 커리큘럼의 개발과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사 관리 시스템 및 강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을 담당할 지원 인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점점 확대되는 다문화교육과 함께 다문화이해강사 또한 더 많은 인원이 배출될 것이므로 한국사회의 타 문화적 수용성과 다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화교육과 국가 차원의 자격제도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무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문화감수성 및 수용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성인들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수업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유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들의 문화매개경험이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함양하게 되었으며 한국문화 이해 및 타문화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개인의 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는 물론 타 문화의 이해를 돕고 문화매개자로서 두 나라의 문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문화 감수성을 기초로 한 체계적인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이해강사 개개인이 문화에 대한 진정성을 함양하고, 문화적 역량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당한 사회의 일원

으로서,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문화매개자로서, 보다 의미있는 이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 상호문화, 다문화수용성, 문화매개

# 목 차

국문초록 .....	i
목차 .....	iv
표 목차 .....	vii
그림 목차 .....	vii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동기 .....	5
II. 이론적 배경 .....	7
1.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이해강사 .....	7
2. 문화매개와 문화적응 .....	21
3. 선행연구 분석 .....	25
III. 연구 방법 .....	29
1. 연구개요 .....	29
2. 연구참여자 .....	33

3.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 .....	38
3.1. 자료수집 .....	38
3.2. 자료분석 .....	40
4. 윤리적 고려 .....	41
<b>IV. 연구결과 .....</b>	<b>44</b>
1.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경험 사례 .....	45
1.1. 새로운 도전과 기대 .....	45
1.2. 교육의 만족도 및 바람 .....	49
1.3. 비전과 한계 .....	52
2. 다문화이해강사 교육활동경험 사례 .....	55
2.1. 교육 활동에서의 반응과 태도 .....	55
2.2. 교육 활동 후 변화와 강사 활동의 의미 .....	61
2.3. 강사활동의 어려움 .....	67
3. 다문화이해강사 문화매개경험 사례 .....	71
3.1. 문화 인식 .....	71
3.2.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	76
3.3. 한국문화이해 .....	79
<b>V. 결론 .....</b>	<b>86</b>
1. 요약 .....	86
2. 논의 및 제언 .....	88



참고문헌 .....	94
부록 .....	98
ABSTRACT .....	104

## 표 목차

<표 II-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	8
<표 II-2>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의 증감 추이 .....	8
<표 II-3> 국적별 · 성별현황 .....	9
<표 II-4>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의 증감 추이 .....	10
<표 II-5>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	13
<표 II-6>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강의 일정 .....	16
<표 II-7> 중학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수업계획안 .....	17
<표 III-1> 심층면담 가이드 .....	31
<표 III-2>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	34
<표 IV-1> 범주화목록 .....	44

## 그림 목차

<그림 II-1> 다문화수업 그림자료 .....	18
<그림 III-1> 연구설계 및 분석 절차 .....	4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이주의 전 지구화에 따른 국제이주의 증가로 한국 내 외국인의 정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은 상이한 국가·민족·인종·문화 간의 교류를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신화를 넘어 다문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이수한, 2019).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 이질성(global heterogeneity)이 민족·인종·종교·문화 등 다양한 층위의 ‘경계’를 뒤흔들며 확산되는 디아스포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김진희, 2014).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가 가속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순혈주의와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박신영, 2014).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국제결혼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2000년 중반까지 중국동포와 한족의 결혼이주가 국제결혼의 증가를 가열시켰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이주민의 증가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0년 126만 명이던 외국인의 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그 두 배인 252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4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장·단기 불법체류 외국인 390,814명을 포함하여 2,176,72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결혼이민자는 167,860명으로 4.0% 증가했다. 그중 결혼이주여성은 138,578명으로 결혼이민 전체의 82.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1980년대 통일교로부터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의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국 남성과 아시아 저소득국 출신 여성의 결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다. 아시아 여성의 결혼 증가는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이들의 계층에 상승 욕구라는 경제적 요인과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지역적 남녀성비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아영, 2011). 또한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남아 저개발국가 출신 여성이 대거 유입되고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국내인구의 4.2%로 우리나라 인구구성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에 우리 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이해로의 인식개선과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전적 의미의 ‘다문화’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다문화사회’란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sup>1)</sup> 다문화사회의 관심은 사회의 다양한 문화집단, 즉 외국인을 비롯하여 혼혈인, 경제적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등의 모든 비주류 집단들의 문화와 역사가 그 사회의 주류 문화와 소통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권미경, 2006). 다문화 시대에서의 문화이해교육은 양 방향적이어야 하며 이주민은 물론 원주민들의 의식개선과 문화적 수용성이 증가되어야만 다문화사회의 통합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김병하, 2005: 윤수종, 2005: Hsia, 2008).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하여 국내인과 이주자 간 상호 소통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상호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이 소수집단을 배려하고 다문화가 서로 공존할

---

1) 네이버 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수 있도록 시행하는 교육이다. 모든 문화는 또 다른 어떤 문화의 일부분이 되는 것과 내가 소유하는 문화가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다른 문화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김선미, 김영순, 2008).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이나 적응교육 등 현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이해교육을 시행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에 상호문화간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과 더불어 이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박신영, 2014).

Gay(2000)는 다문화교육의 주체가 수행하는 주된 역할을 양 문화의 매개자, 문화조직자, 사회적 맥락의 조정자로 구분했는데 국내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은 내국인과 이주민의 중간매개자이자 소통자로서 이주민들의 적응은 물론 내국인들의 타 문화적 수용성과 다문화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책임자이다(황정미, 2009; 민무숙 외, 2009). 특히 국민 됄을 전제로 하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은 물론 이들 자녀 역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것이다(김현민, 2014). 따라서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는 인적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인적자원으로서 이민자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에 따른 인적자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활용 효과는 향후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통합에 매개체 역할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김현민, 2014)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문화이해학습은 상호 타자화를 극복하고 상호공존의 단계로 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서영, 2017).

오늘날 한국 사회는 토착화된 관습과 편견을 뛰어넘어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내국민의 타 문화적 수용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 다문화사회통합의 매개체 역할로서 인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이해교육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며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지역사회에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다문화 감수성 증진 및 문화매개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다문화사회통합 매개체 역할로서 인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한국 문화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적응에 대한 문제점과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고 다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고찰과 다문화 이해교육의 중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로서의 활동 경험이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한국 문화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을 진행하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들의 교육활동과 문화매개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자국문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문화매개경험이 한국문화의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을 위한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의 프로그램 및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후 다문화이해강사로서의 활동경험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이 결혼이주여성의 자국문화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가 참여했던 양성과정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가 수행했던 교육활동의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은 어떠한가?

### 3. 연구 동기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강사로 활동하는 연구자의 한국어 수업에 참여했던 결혼이주여성 학습자와 상담을 하며 생긴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오랜 기간 한국어를 지도하면서 학습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자녀들의 언어나 교육문제, 자신들의 한국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어느 정도 언어표현이 가능하거나 유창하게 발화를 하는 학습자들은 취업에 대해 상담을 하기도 했지만 결혼이주여성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다문화가족센터의 취업상담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신 선생님이 맡았다. 본 연구자가 가르친 한국어 학습자가 통·번역사 시험에 합격하여 센터의 통·번역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 경우도 몇 번 있었으나 한국어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지난 학기에 한국어 4단계 과정을 이수하면서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두 명의 학습자가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고민을 연구자에게 상담하였다. 다문화이해강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수업에 자신감이 없었고 경험도 부족해서 다양한 교구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또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교육 대상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학습자와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면서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이 문화를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학습능력은 있으나 발화에 있어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늘 걱정했던 학습자가 다문화이해강사로써 의사전달을 어떻게 하며 수업 진행 과정의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했다.

그들의 질문과 고민을 통해, 본 연구자는 외국인이 문화 차이로 생기는 오해 및 차별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과 한국어를 습득하고 다문화강사 양성 과정을 거쳐 다문화이해강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또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하고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과 인식에 대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자료들이 다문화이해강사를 시작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 이미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들이 문화매개자로서 문화를 이해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들의 경험을 탐구하게 되었다.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요구 속에서 내국민의 다문화 인식변화는 물론 다문화이해교육을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이해강사

이주의 국제화 및 세계화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부터 이주민의 증가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과 한국 사회의 변화 및 경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인 영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노동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1987년 이후 노사분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의 변화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이른바 ‘3D’ 직종의 일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중에서도 산업 부분의 중소기업 생산 관련직의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생산직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소비형 서비스 산업의 증가 추세와 한국 사회에서의 성차별문화, 가족 중심주의 인식은 여성 노동자의 인력난을 초래하였다. 이는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특히 여성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거기에 덧붙여 한국 여성의 결혼 기피 및 만혼, 배우자 선택의 차별화, 남성의 경제력 약화, 남성 성비의 불균형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한국 여성 배우자와의 결혼이 힘든 한국 남성들은 국제결혼으로 그 모순을 해결하려 하였다.<sup>2)</sup>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까지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에서도 결혼관이 변화하면서 특수한 경우로 생각되었던 국제결혼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결혼이주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외국인 남성의 이주가 노동 중심으로 한국에 왔다가 한국인 여성

2) 동포투데이 <http://dspdaily.com/news/2020.5.6>

과 결혼하는 반면 여성의 이주는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전경미, 2013).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 유입으로 외국인 입국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0년 126만 명이던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수는 다음 <표 II-1>과 같이 2019년 12월 말 기준, 그 두 배인 252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 대비 32.9%( 625,137명) 증가,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sup>3)</sup>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체류외국인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인구	51,529,338	51,696,216	51,779,892	51,826,059	51,849,861
인구대비체류 외국인비율	3.69%	3.96%	4.21%	4.57%	4.87%

출처: 2019년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인용

2020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장·단기 불법체류 외국인 390,814명을 포함하여 2,176,72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다음 <표 II-2>와 같이 결혼이민자는 167,860명으로 4.0% 증가했다.

<표 II-2>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의 증감 추이<sup>4)</sup>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9년 4월	‘20년 4월
인 원	151,608	152,374	155,457	159,206	166,025	161,458	167,860
전년대비 증 감 률	-	0.5%	2.0%	2.4%	4.3%	-	4.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04)

3) 통계청 <http://kostat.go.kr/>

4) 법무부 <http://www.moj.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자료(2020.04)에 따르면 전체 결혼이민자 중 남성은 29,282명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은 138,578명으로 결혼이민 전체의 8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다음 <표 II-3>에서와 같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 국적별 · 성별 현황

국적 구분	계	중국 <sup>5)</sup>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국	기타
전체	167,860	60,505	22,757	44,951	14,252	12,099	5,353	4,731	3,940	22,029
	100%	36.0%		26.8%	8.5%	7.2%	3.2%	2.8%	2.3%	13.1%
남자	29,282 (17.4%)	13,620	8,108	2,885	1,216	474	102	402	2,825	7,758
	138,578 (82.6%)	46,885	14,649	42,066	13,036	11,625	5,251	4,329	1,115	14,271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04)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가리키며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음 <표 II-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는 결혼이민자 국적국 국제결혼제도의 강화 등의 영향을 받아 현저하게 감소, 2010년부터는 국제결혼 희망 내국인의 수요 증가와 각국에서의 국제결혼제도의 정상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13.2%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2010년 141,654명, 2012년 148,498명, 2014년 150,994명, 2016년 152,374명, 2018년 159,206명으로

5) 한국계 포함

2014년 이전에는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2014년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다시 감소하였다. 그중 2018년 기준 결혼이민자 중 여성이 132,391명으로 전체의 83.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020년 현재 82.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sup>6)</sup>

〈표 II-4〉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의 증감 추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93,786	110,362	122,552	125,087	141,654
전년대비 증감율	25.0%	17.7%	11.0%	2.1%	13.2%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4년11월	‘15년12월
인 원	144,681	148,498	150,865	150,994	151,347	151,608
전년대비 증감률	2.1%	2.6%	1.6%	0.1%	-	0.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자료: (2010), (2015. 12)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명칭은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 결혼이주민 등으로 명확한 지칭없이 혼용되어 불리다가 2006년 4월 26일 범 정부적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에서 ‘여성결혼이민자’ (female marriage immigrants)라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6)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결혼이민자 [結婚移民者] (두산백과)

즉,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개념, 특히 이념과 관련된 개념과 사회적 호칭에 더욱 민감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개념과 용어, 호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칭하기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정귀자, 2009).

이주여성(female immigrants)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국내 인권단체에서 부르는 용어로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을 통한 이민 여성, 성매매 종사 외국인 여성,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여성이라는 네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강희구, 2010). 이처럼 이주여성이라는 말은 다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이민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적합하지 못하며 ‘결혼이주여성’ 또는 ‘결혼이민자’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구은정, 2010)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김민정 외(2006)는 최근 한국 상황에서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결혼의 성격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성별이 구분되는 용어가 보다 적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현민, 2014).

여성가족부(2006) 전국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를 통해 삶의 기반을 옮겼지만 한국 국적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37.2%에 불과하여 이민의 성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라는 용어사용을 유보하였다(김혜순, 2006). ‘여성결혼이민자’ 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민을 택한 이유가 결혼을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결혼을 통한 이주가 여러 이주 경로 중 실제로는 여성 본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 선택된 것임을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돌봄과 서비스영역으로 이주하는 여성 이주의 일반적인 경향 즉, 여성 개인과 그 경제적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 선택하는 결혼 이주와 송출될 수밖에 없는 출신국의 정치·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출신국에서 가졌던 여성 개인과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이주의 여성화와 세계화에 따른 이주 논의에서 언급되는 층위들을 포괄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구은정, 2010) 한국 국민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지칭하기 위해

정부 문건에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여성’, 그리고 일반 문헌에는 ‘결혼이민여성’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김혜순 외, 2006).

이처럼 많은 용어들이 통일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가 곧바로 국적 취득과 같은 이민의 성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이민’은 가구 단위의 이동이 많다는 점을 구분하고, 결혼을 통한 이동을 국제 노동 분업에 따른 하나의 이주 형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되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인용문은 본문에서 지칭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항<sup>7)</sup>에는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8)</sup>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결혼이민자’, ‘외국인 배우자’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 취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 출신의 여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로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내국민의 타 문화적 수용성과 한국 사회 다문화사회통합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는 인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인과 내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편견과 선입견의 해소 및 교육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다문화이해강사는 내국민 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내국민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전달하고, 결혼이주여성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 본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다문

---

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항 (시행 2017. 10.31. 법률 제14974호.)

8) 난민법. 법률 제11298호.

화사회를 보다 가깝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문화 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문화 외교 역할을 한다.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은 경제적 자립 및 역량 강화의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2008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sup>9)</sup> 취업 지원이라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여러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다음 <표 II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내국인과 별도의 구별 없이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다.

<표 II -5>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기관	대상	교육내용	방법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소통</li> <li>•다문화사회와 인권</li> <li>•유아 및 유아발달의 이해</li> <li>•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법</li> <li>•시연 및 피드백</li> <li>•프로그램 개발</li> </ul>	강의 시연
부천시 삼정종합 복지관	여성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교육</li> <li>•다문화교육의 이해</li> <li>•유아의 이해</li> <li>•시연 및 피드백</li> <li>•프로그램 개발</li> </ul>	강의 시연
시흥시 정왕복지관	여성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의 이해</li> <li>•다문화교육의 이해</li> <li>•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레크레이션 자격증)</li> <li>•교육계획서 작성법</li> <li>•스피치, 이미지메이킹 등의 교양교육</li> <li>•실습 및 강의 시연</li> </ul>	강의 실습 견학 워크샵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를 둔 최초의 5개년 국가계획 (대상기간:08년 ~ 12년)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질높은 사회통합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의 방안으로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 등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분야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2008년 12월 1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기획평가팀 보도

시흥 외국인 복지센터	여성결혼 이민자 및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해설사와 함께 배우는 다양한 문화</li> <li>•다문화 및 언어 이해 교육</li> <li>•다문화 전시 및 발표</li> </ul>	강의 실습 견학
청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결혼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발달과 심리</li> <li>•동화 구연</li> <li>•여러 나라 문화이해</li> <li>•연극의 이론과 실제</li> <li>•다문화의 이해</li> <li>•백제문화기행-부여</li> </ul>	강의 견학 실습 워크숍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내국인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이해</li> <li>•다문화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이해</li> <li>•학습자 이해와 교수법</li> <li>•예술교육 워크숍</li> <li>•교육콘텐츠개발</li> </ul>	강의 실습 견학 참관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국인 여성, 여성결혼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사회 및 문화차이 이해</li> <li>•다문화가족 및 아동의 이해</li> <li>•학교의 다문화교육</li> <li>•다문화정책의 이해</li> <li>•다문화놀이 및 요리체험</li> <li>•강의기법 및 기술, 참관수업</li> <li>•다문화교육 현장특강</li> </ul>	강의 실습 체험
천안 모이세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의 이해</li> <li>•다문화교육 교수법</li> <li>•현장실습</li> <li>•교구, 교재구성</li> </ul>	강의 실습 견학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li> <li>•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인권</li> <li>•현장방문</li> <li>•자녀대화법</li> <li>•국가별 강의시안 작성</li> <li>•다문화교육 시연</li> </ul>	강의 실습 견학 워크숍

출처: 전경미(2013)



한국문화와 모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직접 경험하며 각각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존재가 바로 결혼이주여성이다. 이민자들은 내국민과 이주자 간 중간매개자·소통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주자를 상담하거나 교육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민을 교육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양 문화 간 소통과 교류, 혹은 문화접촉자, 문화촉진자 등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다(이민정, 2011).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는 스스로 제작한 자료와 소품을 활용하여 국가별로 자신의 모국 문화를 알리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욕구의 증가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나 국내 학생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강사’, ‘다문화이해강사’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많이 볼 수 있다(민무숙 외 2009).

‘다문화강사’, ‘다문화이해강사’ 또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호칭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뿐 아니라 내국인 다문화강사들에게도 구별없이 통용되고 있으나 ‘다문화강사’는 주로 외국인 강사를, ‘다문화이해강사’,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는 내국인 강사를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식으로 구별되어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문화이해교육 활동을 하는 강사를 ‘다문화이해강사’로 호칭을 통일하여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다문화강사’ 또는 ‘다문화이해강사’의 양성과정은 다음 <표 II-6>과 같이 지역과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이해강사 교육은 8주간 24시간 내외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나 시수나 프로그램이 통일되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 5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 진행되는 곳도 있다<sup>10)</sup>.

10)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과정’ 총 8회 25시간 운영. 2016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3개월간 주 2회 50시간 운영. 2018  
 다문화인재개발원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기초반, 심화반 각 60시간 운영. 2019

<표 II -6>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강의 일정

회기	시행일	시간	강의내용	교수방법		
1	6월	2	13:00-15:00	개강식	강의	
2			13:00-15:00	사업설명회	강의	
3		4, 9, 11, 16, 18, 23, 25, 30	14:00-17:00	한국문화알기 I	견학	
4				아동발달과 심리	강의	
5				한국문화알기 II	견학	
6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I	강의	
7				한국문화알기 III	견학	
8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강의	
9				한국문화알기 III	견학	
10				비폭력의사소통 (긍정적 의사소통)	강의	
11	7월	2, 7, 9, 14, 16, 21, 23, 28, 30		14:00-17:00	세미나 (참가자 담론형성)	강의
12				14:00-17:00	교수법 강의 I	강의
13			14:00-17:00	각 국가별 탐구 I (중국)	견학	
14			14:00-17:00	교수법 강의 II	강의	
15			14:00-17:00	각 국가별 탐구 II (필리핀)	견학	
16			14:00-17:00	교구만들기 강습 I	강의	
17			14:00-17:00	각 국가별 탐구 III (베트남)	견학	
18			14:00-17:00	교구만들기 강습 II	강의	
19			14:00-17:00	각 국가별 탐구 IV (일본)	견학	
20	8월	4, 6, 11, 13, 18, 20, 25	14:00-17:00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실재 I (베, 중, 몽)	강의	
21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실재 II (필, 러, 일)	강의	
22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실재 II (필, 러, 일)	강의	
23				각 국가별 탐구 VI (몽골)	견학	
24				전산활용기법 I	강의	
25				각 국가별 탐구 VII (태국)	견학	
26				전산활용기법 II	강의	
27		28		1박 2일	역량강화프로그램	기타

28	9 월	1	14:00-17:00	모듬(국가)별 프레젠테이션	강의
29		3		모듬(국가)별 연구	기타
30		8		모듬(국가)별 발표	기타
31		-		실습 I	실습
32		15		세미나 I	강의
33		-		실습 II	실습
34		22	세미나 II	강의	
35		29	14:00-16:00	수료식	기타

자료: 2009년 인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는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생 및 일반 성인과 노인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현장에 파견되어 다문화이해교육 활동을 하며 다음 <표 II-7>에 서와 같이 기관의 요청에 따른 주제 선택과 교육 대상자의 연령 및 학년에 따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7> 중학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수업계획안 (예시)

‘글로벌 문화학교’ 프로그램 계획서			
강사명	○○○	교육국가	러시아
주 제	러시아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는 얼마나 다를까요?		
목표	1. 러시아의 기본 정보(수도, 언어 등)를 알 수 있다. 2. 러시아의 문화 배움을 통해 한국과의 차이점, 비슷한 점을 알아본다.		
교육대상	중학생	교육시간	100분
문화체험 프로그램	단계	주 요 내 용	시간
	도입	○ 글로벌 문화와 러시아의 사전 지식 확인 ○ 강사 소개 및 오늘의 수업 주제 안내	10분
	전개1 (PPT)	○ 러시아 알아보기 - 위치, 국기, 수도, 옛날 수도 (상트 페테르부르크 ) - 표트르 1세 대한 이야기 통해 러시아 역사 -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한국 사회랑 비교 하기	50분 (휴식)

		○ 일상생활에서 생활방식의 차이 알아보기 - 러시아 습관, 생각, 태도 등 - 첫 만남, 교통 수단, 에티켓 등 ○ 학교생활에서 차이 찾기 - 학교의 운영 체제(초,중,고 따로 없음, 방학 등) - 러시아 언어(알파벳, 명사로 구분, 재미있는 표현)	
	전개2 (활동)	○ 러시아 공예품 소개 및 체험 - ‘로시키’ 손가락으로 생긴 악기 (무늬, 연주) - 다양한 마트료시카 등 ○ 러시아 전통 모자(코꼬시니크) 체험 ○ 러시아 음식 및 요리 소개 - 비트(한국 무와 비슷) : 삶은 비트 시식 - 러시아 음식을 순서대로 먹는 것 - 러시아 빵의 맛을 알아보기	30분
	마무리	○ 오늘 배운 만족도 설문 작성, 기념 사진 촬영	10분
준비물	강사 준비사항	교육자료(USB), 전통 모자, 전통악기, 장난감, 마트료시카, 삶은 비트, 호밀빵	
	교육기관 준비사항	컴퓨터 및 빔프로젝트 (PPT사용)	

자료: KT그룹 희망나눔재단 ‘글로벌 문화학교’ 프로그램 계획서

다음은 <표 II -7>의 다문화이해교육 수업계획안에 따른 그림자료이다.

<그림 II -1> 러시아수업 그림자료

<p>&lt;모스크바&gt;</p>  <p>15세기~18세기초/1918부터 러시아 수도</p>	<p>&lt;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gt;</p>  <p>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그로 옴)으로 옮김</p>
---	---

**<러시아 학교>**



러시아 학교는 탈의실부터 시작한다

**<러시아 문자-알파벳>**

Русский алфавит

А а	Б б	В в	Г г	Д д	Е е	Ё ё
Ж ж	З з	И и	Й й	К к	Л л	М м
Н н	О о	П п	Р р	С с	Т т	У у
Ф ф	Х х	Ц ц	Ч ч	Ш ш	Щ щ	Ъ ъ
Ы ы	Ь ь	Э э	Ю ю	Я я		

10세기부터 쓰이는 33글자로 이루어짐

**<보르시>**



비트로 만든 러시아 대표하는 국, 빵

**<러시아 전통 무늬>**



전통 무늬에 산딸기 그리는 과정

**<코코시니크>**



러시아 여자 전통 모자

**<마트료시카>**



19세기부터 러시아 전통 장난감

자료: 글로벌 문화학교 러시아수업 그림자료

한편,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는 2012년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와 다문화 인식개선을 돕기 위해 양성한 전문인력으로 다문화이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 한국 사회의 다문화지수를 향상해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마련되었다.<sup>11)</sup>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를 통해 다문화 관련 업무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갖추고 있는 200여 명의 다문화 전문가를 선발하고,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갈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고 심사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3개월간 기본-전문-심화과정을 거쳐 다문화사회의 시민 양성을 위해 활동할 전문가로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며 양성된 강사는 전국망의 교육 수요처 연계를 통해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다. 특히 전문강사 간의 네트워크 장이 되는 ‘전문강사 인력풀’에 등록되며 엄격한 선발기준과 교육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지수를 향상해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다문화 인식을 개선 시켜주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문화강사, 혹은 다문화이해강사와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2020년 6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0년 다문화이해교육 이주민 전문강사 양성교육과 위촉을 시행하였다. 2012년 전문강사제를 도입한 이래, 선주민을 중심으로 자격을 유지한 225명(2019년 12월 기준)의 전문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문화 활동 경험과 강의 경력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집중 발굴하여 양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33명을 선발했다. 총 9개 출신국,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화과정으로서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토론과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문화이해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으로, 유아·아동·청소년·성인·경찰·군인·시설종사자 등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진다.<sup>12)</sup>

---

11)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2012년>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1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2020년 다문화이해교육 이주민 전문강사 양성교육.

## 2. 문화매개와 문화적응

‘문화’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때로는 문학 및 예술분야를 지칭하기도 하고 ‘지성’, ‘지식’, ‘발전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한 인간집단 또는 한 지역이나 나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을 총괄해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관습적인 행위와 그런 행위의 산물을 ‘문화’라고 부르고 있다<sup>13)</sup>.

1871년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Tylor)가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문화’와 ‘문명’ 같은 말은 “지식, 믿음, 기술, 법,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모든 다른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잡한 총체”를 지칭한다(한상복, 이문웅, 김광익, 2012). 노란(Nolan)은 문화란 한 집단의 세계관, 즉 특정한 사회가 오랜 시일에 걸쳐 창조해낸 세계를 조직하는 규범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과 자신의 세계 그리고 자신이 겪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전희주, 임병학, 2012).

상이한 문화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문화접촉이라고 하고, 문화접촉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적응에 대한 관심은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개념을 대두시켰다(김광수, 2017). 최근의 문화접변에 대한 관점은 이주자가 자신의 고유문화를 지켜나가면서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주한 집단의 주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으로의 가치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이주자가 새로운 주류 문화로의 일방적인 동화보다 자신의 고유문화와 새로운 주류 문화의 조율과 양립이 쌍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접변을 지향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설명모델이 Berry(1980)의 문화접변 모델이다(김광수, 2017). Berry는 이주자가 문화접변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적 특성과 반응의 방식에 따라 문화접변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보고 자신의 원래 고유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와 새로운 주류집단의 문화를

13)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문화란\\_무엇인가?](https://terms.naver.com/문화란_무엇인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두 차원에 따라 문화접변의 유형을 네 가지, 즉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그리고 주변화(marginalization)로 범주화하였다(김광수, 2017). 통합은 비주류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정체성 및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집단 문화를 수용하여 자신들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두 사회의 문화를 통합하며 공존하면서 적응해 가는 유형을 의미한다. 동화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기존의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새로운 주류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이다. 분리는 주류집단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새로운 주류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문화적 정체성만을 유지하고 유형이다. 주변화는 새로운 주류집단의 문화 수용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문화적 정체성도 부정하는 유형이다. Berry는 이주자 개인이 선택한 이 문화접변의 유형에 따라 새로운 주류집단에 대한 적응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문화접변의 유형 중 통합을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박인영, 2010: 김광수, 2017).

통합적인 문화접촉을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주류집단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매개가 필요하다. ‘매개’란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매개자란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나 물건을 지칭한다.

2000년대 들어 문화와 향유자를 보다 잘 이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매개’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문화매개’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주로 문화·예술영역에서 ‘매개’ 혹은 ‘문화매개’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지만 그것도 통일된 개념은 아니다(민지은, 지영호, 2016).

‘문화매개’는 ‘매개’의 정의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장 프랑수아 식스(Jean-François Six, 1990)는 ‘매개’의 정의와 역할 중 관계 맺음과 관련된 것으로 ‘창시적 매개(médiation créatrice)’와 ‘재창시적 매개(médiation rénovatrice)’를 이야기하고 있다. ‘창시적 매개’는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다’를 의미한다. 기존에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나 단체를 새롭게 연결할



때 필요한 매개를 의미하며 ‘재창시적 매개’는 이미 기존에 접한 경험이 있지만 더 견고한 관계를 위해 이를 보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민지은, 지영호, 2016). 문화매개에서 ‘매개(媒介)’는 프랑스어 명사 ‘미디어시옹(médiation)’을 번역한 것이며 명사 ‘미디어시옹’의 첫 번째 사전적 정의는 “두 사람 혹은 두 조직 간의 조정 혹은 화해를 위한 중재를 의미한다. 문화 매개 어원도 ‘중재자’에서 비롯됐다(민지은, 지영호, 2016).

일반적으로 문화매개라는 단어는 문화와 향유자를 연결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매개자’란 국내인과 이주민과의 상호문화이해를 돕기 위한 중재자 역할의 의미로 사용된다.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는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매개자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이주하기 전 자국에서 무의식과 의식 속에 경험하고 교육받은 문화와 국내 이주 후 경험하게 된 한국의 문화를 토대로 새롭게 인식한 문화체계를 내국인들에게 전달하는 문화교류의 실천자 역할로서 새롭게 인식한 두 나라의 문화를 ‘매개’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 시대에 문화매개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은 문화 간 소통을 위한 기술이자 능력이다. ‘소통’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 요소로 상호문화주의의 핵심이다. 서로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서로 간의 태도에서 시작되므로 문화 간 대화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노력을 수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시간이 흘러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적 공유와 교류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문화 간 대화의 의의이자 목표이며 이는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상호문화적 관계의 진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 문화 다양성은 역동성과 혁신, 창조성, 성장의 원천이다. 다양성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규범과 문화유산, 정체성을 서로 인정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sup>14)</sup>

---

14)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상호문화주의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2014. 4. 15.)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상호문화적 관계의 진화를 위한 상호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만남을 지속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계지속을 위해 문화간 다양성의 인정과 문화간 공통점 역시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상호문화성’ 이라고 한다. 이는 각자의 고유성을 지닌 문화들 사이에도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내적 유대를 기반으로 모든 문화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교류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정영근, 2001). 상호문화성은 서로 겹치는 문화 간의 영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지점은 문화 간 이해를 통해 확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호문화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도 자신과 같은 주체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상호문화성은 초국적 이주가 보편화 된 세계화 시대에서 필수적이며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들을 지배하거나 혹은 동화시키거나 획일화하는 것을 비판하고 전 세계의 문화가 상호 균등한 위치에서의 접촉과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김영순, 2020). 따라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서로 겹치는 문화 간의 영역을 인정하며 문화 간 이해를 통해 서로의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응은 개개인의 가치와 행동 유형에 따라 모국의 문화와 주류문화의 비중을 달리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다고 보았다(박인영, 2010). 이러한 다원주의적 문화적응 관점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모국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주류 문화와 비주류문화, 양방의 변화를 통하여 문화적응이 이루어진다(박인영, 2010). 문화적응이란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직접적이며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문화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어느 한쪽 문화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은 두 문화가 함께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상황이 접촉하는 능동적 행위로 양방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시대의 조화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상호문

화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접촉이 필요하며 문화매개를 통한 상호문화 이해 및 통합적 문화적응이 요구된다.

### 3.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민이 증가한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로 지속되었다.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활동에 관한 논의도 많았으나 주로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의 진단 및 교육과정개발과 다문화 교육의 실태와 인식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체류자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하였고 상호문화이해가 중요시됨에 따라 최근 들어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면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에 관한 연구가 두각 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

먼저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의 프로그램 진단 및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연구로 전경미(2013)는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양성과정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김유나(2010)는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프로그램강사의 역량모델을 추출하였다.

다문화강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자아존중감,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영향에 대한 파악한 연구(구은정, 2010)는 이전까지의 연구가 다문화교육 교사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검증에 있어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을 비롯한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다문화교육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측정도구를 통한 검증으로 개개인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임혜정(2017)은 결혼이주여성들 당사자 관점에 기반하여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서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는 결혼이주여성 당사자 조직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주민 당사자의 요구와 실천을 담은 다문화교육을 통해 한국의 지배 담론에 맞서 갈등을 다루어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형성해가는 여성들의 주체성을

드러냈다. 이는 이전까지의 관점이 내국인이나 혹은 이주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진 반면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의 요구와 실천이 담겨져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다문화강사의 요구와 실천이 다문화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다문화교육의 실태와 인식 및 문화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모국의 문화적 사고방식의 선호로 인해 한국 문화와의 갈등 및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 고학력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인식에 대한 경험 연구가 있으며(박인영, 2010), 다문화인으로서 다문화강사관점에서 한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이민정, 2011)과 다문화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방안을 제시한 연구(조형숙, 2017; 오윤지, 2017)가 있다. 권미경(2006)은 다문화사회의 교육문제를 현상학적 입장에서 접근하였으며 김효선(2015)은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 모색에서 평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난영(2017)은 국립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교육 전문인력의 문화다양성 이해에 대한 방안과 문화의 수용성과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광수(2017)는 이주여성의 문화접변 과정을 통해 문화접변의 유형과 차이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이성희(2016)는 동화를 넘어서 ‘통합’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주여성의 자문화와 목표문화인 한국 문화 그리고 타국 출신 이주여성들의 자문화인 타문화를 함께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이를 함께 이해하고 향유하는 제3의 공간(the third place)을 형성하여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 신장을 도모했다. 이는 한국 문화 교육 현장에서 이주여성이 자문화를 다른 이주여성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를 실현하고 민족적 정체감과 자아 정체감을 신장시키며 이를 통해 자문화와 한국 문화를 함께 존중하고 다양성을 즐기는 ‘통합’의 이주민 적응 양상을 지향하는 이주여성 대상 문화 교육방안을 설계했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실제 적용 및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도 다문화교육정책에 대

한 논의로 바람직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연구(채보근, 2011)와 우리 사회와 상호주의 간 접점을 찾아 그 대안을 제시(박중대, 2017),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담론의 역학에서 다양성의 의미에 관한 비판(이수한, 2019)이 있다.

세 번째는 다문화 전문인력에 관한 연구로 다문화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두각된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 역할 및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강기정, 2012)와 다문화전문강사 관점에서 본 운영 현황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으며(강복정, 김경아, 2018), 고영희(2019)는 다문화사회전문가에 대한 인식과 역할 제고에 대한 방안연구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라는 용어에 대한 개칭을 주장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양성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와 여성가족부 관리의 다문화이해강사의 중앙정부에서의 관리통합을 주장하였다. 인재수급과 우리 사회의 전문가를 위한 결혼이주여성 전문가교육의 논의에 대한 연구(김현민, 2014)와 민무숙 외(2009)는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 및 방향과 사례검토를 통해 다문화전문인력의 문화매개자로서 역할을 규명하고 있다. 그 외 다문화 강사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고(이혜영, 2012; 임혜정, 2018), 홍우정(2018)은 다문화이해교육강사들에 의한 한국사회 다문화 인식변화에 논의하고 있으나 연구결과의 다문화이해교육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면 주제에 제시된 연구참여자 다문화이해강사의 인식과 일반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의 차이를 변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권오현(2012)은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양성한 다문화이해 전문강사의 인식의 변화와 상호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교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012년 여성가족부가 내국인 대상인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라는 교육과정으로 해마다 전문강사를 양성한 이후 2020년 6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다문화이해교육 이주민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경험과 강의 역력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집중 발굴하고 양성하여 선발했기에 이에 따른

결혼이민자 전문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거나 내국인의 인식 변화와 우리사회에서의 지원 및 다문화강사의 역할에 대한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교육활동에 주목하여 활동 경험의 의미와 교육 경험을 통해 새로 인식하거나 변화된 의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다문화이해강사로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다문화이해강사의 교육활동이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한국문화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 사례를 통해 도출해 보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 사례에 관한 연구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이 자국의 문화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한국 문화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이해교육은 다양해지고 변이된 학습자들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및 인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이해교육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개개인의 문화매개경험을 질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탐색해보았다.

질적 연구의 기본 가정은 세계나 실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조영철, 2012 재인용). 질적 연구는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정된 질서의 진위를 입증하기보다는 한 인간집단이 어떤 질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왜 그러한 질서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더 관심을 두며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체계나 신념체계 행위규칙 적응전략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한 연구방법이다(조용환, 1999).

김영순 외(2018)는 질적연구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삶에 대한 이해방식을 수집하여 이를 연구자가 가정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연구자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학문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질적연구가 필요하다(김기화, 2019). 질적연구는 개인들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체계나 신념체계를 파악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이

해교육 현장에서 다문화이해강사들의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경험을 이해하고 각각의 사례로부터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질적 사례연구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는 단일 또는 복수의 사례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할 때, 특정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례가 갖는 의미를 얻고자 할 때, 즉 어떠한 현상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쓰는 연구형태이며 사례연구의 특징은 구체성, 서술성, 발견성을 포함한다(Merriam, 1998; 김진희 외, 2015). 즉, 사례연구의 방법은 구체적인 현상과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이 사례가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례연구는 서술적이어야 하므로 풍부하고 심도 있고 풍부한 서술을 제공하며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완벽하며 직접적인 서술을 의미한다.

‘경계 지어진 체계’ 또는 연구의 ‘대상’으로 사례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례가 시간과 장소에 의해 제한된 범위를 갖는,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Stake, 1995). 사례연구는 현상과 정황사이에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실생활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와 ‘왜’에 관한 연구문제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경계성을 명확하게 제한한다(Yin, 2005; 2009). 즉, 인터뷰할 수 있는 대상이나 관찰을 위한 시간과 장소 등 자료수집에 대한 제한을 통해 사례로서 충분한 경계를 갖게 한다. 이를 통해 사례연구는 연구자로 하여금 경계 지어진 사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김영순 외,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연구의 정의와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일상생활과 교육활동 과정의 경험적인 사례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생각과 다문화이해강사 개인의 문화 배경과 경험에 따라 다문화교육 수행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문화이해강사의 다문화교육활동에서의 문



화매개경험을 통해 자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한국문화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설계의 과정으로 먼저 연구주제 선정 후 주제 관련 문헌연구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참여자 선정하였다. 효과적인 질적 연구를 이루기 위해 연구참여자와의 라포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교육활동 지원을 담당했던 선생님의 도움으로 사전 전화를 통해 신뢰와 친근감을 형성한 후 연구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와 1차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부족한 내용은 추가적인 전화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물리적 인공물은 사례연구 전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사례 연구방법에서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인 면담내용 및 연구참여자와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현장 내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생성물과 심층면담시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교육자료 및 수업계획서, 사진과 소품 등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료로 활용하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 진행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면담의 결과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면담자의 개인적인 자발성과 융통성을 반영하고 일련의 질문들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질문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실시했다. 그리고 면담 과정 중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확장하고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개방적인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반구조화 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 가이드는 다음 <표Ⅲ-1>과 같다.

<표Ⅲ-1> 심층면담 가이드

인터뷰 질문	
다문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과정은 어떤 경로로 받게 되었는가?
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과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강사양성 과정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교육 기간과 시간은 어떠한가?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에서 받았던 수업내용은 어떠한가?
	실제수업에 도움이 된 수업 내용은 무엇인가?
	양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양성과정에서 더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활동	다문화이해강사 활동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다문화이해교육의 수업 대상자는 누구인가?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다문화이해교육 수업 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무엇인가?
	수업 후 학습자의 반응이나 변화는 어떠한가?
	본인의 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에 대해 가족의 지지나 주변의 반응은 어 떠한가?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다문화 이해강사 문화매개 경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하기 전, 문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가?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하면서 자국의 문화에 대해 달라지거 나 새롭게 인식된 것은 무엇인가?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활동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
	본인이 생각하는 자국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강점은 무엇인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가?  다문화 이해강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 수료 후 다문화이해교육강사로 활동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에 관한 연구로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한 지 5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

둘째, 다문화이해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년 이상 활동한 다문화이해강사.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문화이해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이해 및 발화능력이 필요하며 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 한국 생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어느 분야에서든 처음 1년의 경험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그 분야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므로 적어도 2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활동 경험이 있는 다문화이해강사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는 모두 11명이다. 처음에는 연구자가 한국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지원했던 담당 선생님께 본 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강사추천을 요청드렸다. 인천에서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메일을 통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8명의 강사를 섭외하였으나 확인과정에서 1명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며 참여 의사를 철회하였다. 이로써 총 7명의 연구참여자 모집이 이루어졌으며 더 많은 사례를 추출하기 위해 7명의 강사들에게 강의 경험이 풍부한 다문화 강사추천을 요청하였다. 이에 먼저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추천을 통한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4명의 강사를 추가로 섭외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 시간은 60분에서 90분가량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참여자에게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 <표Ⅲ-2>와 같다.

<표Ⅲ-2>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참여자	출신국	연령	학력	거주 기간	활동 기간	거주지	가족구성원	과정
1	태국	47	대졸	17년	11년	인천	남편, 자녀1	수료
2	페루	42	고졸	14년	8년	인천	남편, 자녀2	수료
3	미얀마	29	대학 중퇴	7년	2년	인천	남편, 자녀3	수료
4	중국	42	대졸	16년	11년	인천	남편, 자녀2	수료
5	우즈베 키스탄	38	대학원 졸	15년	5년	인천	자녀2	수료
6	러시아	48	전문대 졸	18년	10년	부천	남편, 자녀1	수료
7	멕시코	35	대졸	9년	7년	인천	남편, 자녀1	수료
8	베트남	32	대졸	12년	8년	인천	자녀1	수료
9	일본	44	전문대 졸	14년	11년	인천	남편, 자녀3	수료
10	중국	51	대졸	18년	11년	서울	남편, 자녀2	수료
11	일본	51	전문대 졸	20년	4년	서울	남편, 자녀2	수료

<표Ⅲ-2>에서와 같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 연구참여자는 나라별로 1명, 페루 1명, 미얀마 1명, 중국 2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 멕시코 1명, 베트남 1명, 일본 2명으로 총 11명이다. 그중 9명은 각각 개별인터뷰로 이루어졌고 연구참여자 10과 연구참여자 11은 연구참여자 활동 일정의 편리에 의한 요청에 따라 동시에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나이는 20대 1명, 30대 3명, 40대 5명, 50대 2명으로 20대 후

반부터 50대 초반까지 각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40대가 가장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짧게는 7년에서부터 20년까지, 대부분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주로 서울과 인천에서 다문화이해강사로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강사활동 기간은 2년 동안 다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1명을 포함하여 평균 기간 8년 이상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활동을 멈추거나 소규모 단체의 활동 요청으로 부분적인 활동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역별로 강사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문화이해강사의 정보교환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해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정구성원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졌으나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두 가정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참여자도 있지만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목적과 강사로서의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국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했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뿐 아니라 한국생활 적응이 힘들었다고 한다. 또 그때는 동남아시아는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라는 편견이 아주 심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지금은 이 활동을 하면서 강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국사람에게는 태국문화를 설명하고 태국사람들에게는 한국문화를 설명하면서 문화차이로 갈등을 겪는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연구참여자 2는 자국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고 살다가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뭔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둘째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한국의 유치원에서 차별 받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를 보게 되었고 이에 한국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한국 거주기간도 짧고 강사활동

기간도 짧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막내가 아직 돌 정도밖에 되지 않아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오히려 활동 의지가 강하고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확실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문화이해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의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연구참여자 4는 한국에 와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다문화이해강사로 직업을 바꾸게 된 사례이다.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힘든 성격이었는데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하면서 활발해지고 일에 대한 열정감이 생겼다고 한다.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가 외국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다가 다문화이해강사가 되고 난 후부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당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계속하면서 다문화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 고향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본국에서의 경력과 학력을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국적 취득에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경찰공무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들 두 명을 키우면서 자신의 인생과 꿈이 바뀌었다. 집도 돈도 능력도 없는 자신이 아빠없이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국은 가족들을 살 수 있게 지원해주고 아이들 교육지원도 해주는 좋은 나라며 위험하지도 않고 법이 튼튼해서 돈 벌기도 괜찮고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다문화이해강사로서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6은 한국에 거주한 지 18년 되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데 18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남성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여성들은 밑에 있는 것이 쇼크였다고 한다. 어렸을 때 그때는 소련이니까 그냥 러시아만 알았고 러시아, 소련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우연히 만난 남편이 한국에 한번 오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살게 되었다. 어렸을 때 아무런 편견없이 자라던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차별받으면서 아이가 다문화가

정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고 3, 4학년 때만 해도 엄마가 다문화이해강사임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사춘기인 지금은 자신을 전혀 받아주지 않음을 고민하고 있다. 사춘기가 지나면 아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식도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7의 경우도 자국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 젊었을 때부터 멕시코에서 살았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계속 멕시코에서 살고 싶어 했으나 연구참여자가 아이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남편을 설득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남편은 한국에서 오히려 외부인같은 느낌이 들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집에서 남편이나 딸과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한국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8은 자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한국에 입국했던 초기에 통·번역사로 일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졸업했다. 외국인 이혼 여성이지만 아들을 키우며 한국에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들도 엄마처럼 자신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참여자 9의 경우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하면서 한국이 학력 중심의 사회이며 교육으로 인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한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하여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연구참여자 10의 경우 2009년부터 다문화이해 양성과정을 받고 다문화이해 강사 활동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활동을 쉬기도 했지만 중국어 과외는 꾸준히 했다. 둘째까지 낳고 오래 쉬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다시 이 일을 선택했는데 협동조합까지 만들고 활동하다 보니 점점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지금은 보람과 사명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1은 연구참여자 중에서 한국 거주기간이 가장 길지만 강사활동 기간은 4년밖에 되지 않았다. 10년 전에 교육을 받고 시작했지만 활동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어 공부를 다시 하다가 만난 일본 언

나의 소개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됐고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세계문화를 배우고 예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됐고 일상이 문화라는 것도 알게 됐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문화이해 강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지만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에서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전화면담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11명 모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강사동아리 활동과 협동조합모임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연구기관과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다문화이해교육 현장 수업을 참여하여 참여관찰을 시행하고자 했다. 참여관찰은 외부자적 관찰이 아니라 사례연구 내부에 있는 관점으로 현상을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업 현장의 분위기나 상황에 대한 관찰 활동 및 참여관찰은 불가능했다. 다만 연구참여자 중 다문화이해강사로 2019년에 본 연구자의 한국어수업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기에 그때 작성해 둔 다문화이해교육의 내용과 강사의 자세 그리고 연구자가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심과 반응에 대한 메모한 자료와 사진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일대일 인터뷰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뷰는 면대면 인터뷰로 반 구조화 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시 면담의 내용은 사전 허락을 받고 녹취하였으며 면담은 1시간~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게 하고 면담 시간에 따라 집 또는 직장 근처의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후에 메모 노트와 면담일지를 사용하여 연구에 단서가 될 만한 핵심 키워드를 기록하며 메모 노트는 이후 개념 형성과정에 활용하였다. 녹음된 면담내용과 함께 연구참여자들의 표정이나 웃음, 말더듬, 한숨 등을 기록하여 대화의 해석에 활용하였다. 면담내용은 면담이 끝난 후 바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늦어도 1~2일 안에 바로 전사하였다. 전사 내용의 양은 첫 인터뷰가 가장 짧은 A4 용지 12매였으며 가장 긴 내용은 19매로 평균 A4 용지 15매이다. 전사된 자료는 반복적으로 읽으며 텍스트의 의미있는 문장을 발견하고 그 문장들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범주의 이름을 정리하였다.

또 질적연구 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서로 관련되거나 연결되는 코드를 비교하며 대조하고 공통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내어 자료를 범주화하고 주제를 개념화하였다.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와 1차 면담 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 2차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연구의 과정은 순차적 단계가 아니라 연구 수행과정에서 지속적 검토와 수정을 필요로 하는 순환적인 과정<sup>15)</sup>이므로 이러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진행하여 ‘이론적 포화’를 적용하여 더 이상 새롭거나 관련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다문화이해교육 수업 참여관찰에 대해 이전 수업에서 참고한 자료 중 수업 일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는 자국의 국기, 대표동물 인형 및 소품을 준비하고 자국의 의상을 입고 교실에 입장했다. 학습자들은 화려한 색상으로 꾸며진 자국의 의상을 입은 강사의 등장부터 감탄을 자아내었다.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ppt 대신 교구활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였다. 수업내용은 나라의 이름과 위치, 언어, 의상, 기후 등 전

---

15) 테보라 k. 패짓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반적으로 나라에 대한 소개 중심이었다. 페루의 대표적인 동물인 라마인형을 처음 보는 외국인 학생들은 자국도 한국도 아닌 또 다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며 다문화이해교육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자신들과 같은 외국인 다문화이해교육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가져온 소품을 활용하여 놀이 등을 설명하였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수업내용 외의 질문도 포함되었다. 학습대상자가 결혼이주여성인 만큼 표면적인 국가 소개 외에 문화와 생활풍습 등 좀 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주부로서 관심 있는 식생활이나 아이들 교육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좀 더 관심이 증폭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수업시간과 대상에 따라 수업의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는 데 이번 수업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국가 소개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차후에도 국가별 다문화이해수업이 꾸준히 진행된다면 다문화인식 및 세계문화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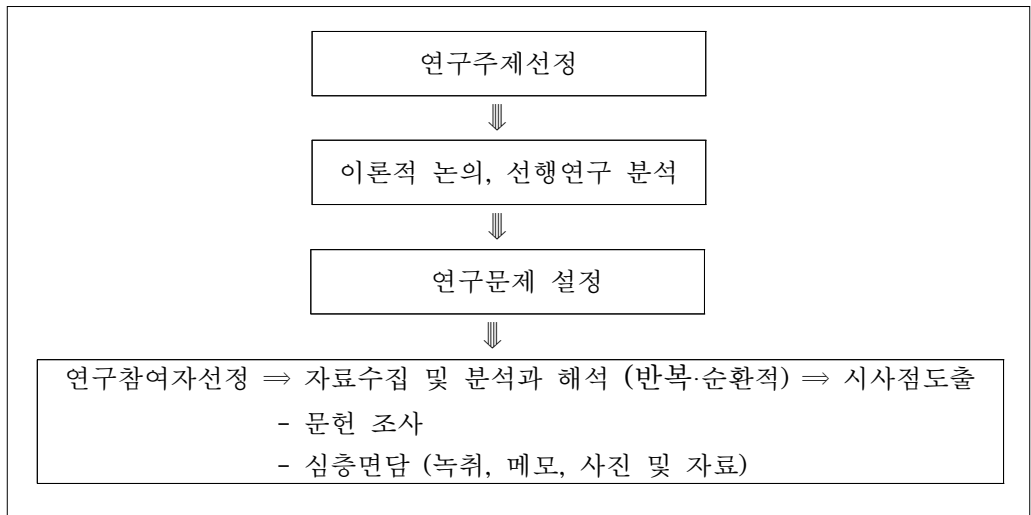
### 3.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와 심층면담, 개인 자료수집 및 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모은 후 심층 면담한 자료에 대해 녹음본을 필사하고 전사 자료 중 의미 단위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사례 내 분석을 통해 얻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소수의 주요 이슈나 요구사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각 사례 내에서 이슈들을 확인하여 사례들의 공통적인 주제를 찾고 분석과 해석을 위해 다음 <그림Ⅲ-1>에서와 같이 연구설계 및 분석 절차에 따라 반복과 순환의 과정을 거쳤다. 사례연구에서의 분석은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이 있다. 사례 내 분석은 연구자가 주제들을 찾기 위해 각 사례를 분석한다. 사례 간 분석은 모든 사례에 공통적인 주제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례들을 포괄하는 주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여러 사례들을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사례 내 분석에 이어 진행된다.

본 연구의 사례 내 분석에서 참여자들이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을 시작하

면서부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하기까지의 활동 경험을 시간에 따라 분석하면서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그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였던 각각의 의미들을 찾아내었다. 이후 참여자들의 경험들을 맥락적 차원에서 유사점들과 차이점을 살피며 교육활동 경험에 관한 중심 의미를 찾아내는 사례 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기술과 그 사례 내의 주제들을 제시하고 사례들에 걸쳐 있는 주제를 검토하였으며 Guba & Lincoln(1981)의 평가적 사례연구의 서술, 해석, 판단의 개입을 통해 사례들의 의미에 대한 분석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림 III-1> 연구설계 및 분석 절차



#### 4.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먼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인터뷰나 심층면담을 통해 추출한 결과들이 앞으로 다문화이해강사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문화이해강사활동, 문화매개자로서의 활동에 참고자료나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

발적 참여를 확인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는 익명으로 정리될 것을 밝히고 연구자와의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참여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으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인터뷰대상자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회기당 소정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면담이나 수업 참관에 대해 부자유스럽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이 경우 언제든지 면담과 수업 참관을 멈출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윤리는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안전 및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며 연구참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심의를 의뢰하여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200520-1A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로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인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이어 본 내용의 분석 내용 결과에 대해 향후 연구참여자와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진술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전화통화와 SNS를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연구자 주관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연구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박사과정의 연구자와 석사과정의 동료 연구자에 의한 검토와 지도교수의 지도 과정, 연구참여자의 확인작업을 연구 과정에 포함 시켰다.

질적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관계맺기를 하는 대상은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또한 개별 인격을 갖는 존재로서 그리고 연구의 동반자로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연구윤리는 연구대상인 인간과 인간집단에 대한 존엄성을 전제하며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료수집의 핵심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더욱 윤리에 민감해야 한다(김영순 외 2018).

이에 연구를 계획하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비교적 소음이 적고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장소 선택 등 주위 환경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왜곡된 해석이 없도록 공감과 경청의 자세로 참여자의 이야기에 집중하였다.

## IV. 연구결과

다문화이해 강사양성과정 수료 후 다문화이해교육 현장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자료와 비공식적인 대화 내용 및 수집된 자료를 질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의미문장을 도출하여 27개의 하위주제를 추출하였으며 같은 의미를 묶어 9개의 주제를 생성한 후 활동사례별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 <표Ⅳ-1>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표Ⅳ-1> 범주화 목록

영역	주제	하위주제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경험 사례	새로운 도전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도움</li> <li>● 차별 편견 없애기</li> <li>● 자존감 높이기</li> </ul>
	교육의 만족도 및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프로그램의 아쉬움</li> <li>● 교육내용이해의 어려움</li> <li>● 부족한 역량 채우기</li> </ul>
	비전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고민과 선택</li> </ul>
다문화이해강사 교육활동경험 사례	교육활동에서의 반응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의 무관심과 무시</li> <li>●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li> <li>● 수업에서의 어려움</li> </ul>
	교육활동 후 변화와 교육활동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라는 자부심</li> <li>● 가족의 지지</li> <li>● 목표의식이 생김</li> <li>● 교육에 대한 신념</li> <li>● 보람과 성취감</li> <li>● 소통과 공감하기</li> </ul>
	강사활동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적 지원의 부족</li> <li>● 정보공유와 연대감 필요</li> </ul>

다문화이해강사 문화매개경험 사례	문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에 대한 생각</li> <li>● 다문화이해교육의 중요성</li> <li>● 문화매개자의 역할과 의미</li> </ul>
	자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타까움과 자기반성</li> <li>●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li> <li>● 애국심과 자부심</li> </ul>
	한국문화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차이</li> <li>● 이해와 인정</li> <li>●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미</li> </ul>

## 1.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경험 사례

<표Ⅳ-1>에서와 같이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경험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라 도출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도움’, ‘차별과 편견 없애기’, ‘자존감 높이기’, ‘교육 프로그램의 아쉬움’, ‘교육내용 이해의 어려움’, ‘부족한 역량 채우기’, ‘진로고민과 선택’의 하위주제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기대’와 ‘교육의 만족도 및 바람’, ‘비전과 한계’로 주제를 생성한 후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경험 사례’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 1.1. 새로운 도전과 기대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다문화이해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한국어를 배우러 갔던 기관에서 센터장이나 한국어교사, 또는 이미 다문화강사를 하고 있는 친구나 주위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추천을 받아 시작했다. 문화나 역사를 좋아해서 다문화강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원한 참여자는 한 사례에 불과했다. 또 양

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강사 활동을 시작했다가 보수교육 때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례도 있다. 다문화강사가 되기 위한 양성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다양했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괜찮은 일’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가 도전 의지를 갖게 했다.

### 가.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도움 - ‘아이도 키우고 수입도 되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을 시작할 때 다문화이해 강사로서의 사명감이나 목적의식 등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다.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일, 즉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조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자녀들을 돌보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문화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로 꼽았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대로 수입도 어느 정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여유롭게 저희가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부이기 때문에 육아도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연구참여자 3)

“한국에 오고 나서 먼저 중국어 강사했어요. 하다가 강의는 저녁 시간에 많이 나가야 돼서, 첫째가 낳고 키우면서 그거 일하기 힘들어서 나중에는 다문화센터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센터장님이 소개해서 이거는 다문화강사 양성 수업이 있더라구요. 그때, 그래서 이거 하면 시간은 자유로 하고 저는 수업이도 애들 등교하는 시간에 강의하니까 낮에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오전에 시간관계상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기 키우면서도 활동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제일 우선 조건이고요.” (연구참여자 4)

“어떤 친구, 이 친구 우리 요리교실 다녔는데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혹시



다문화강사 되고싶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뭐야?’ 전혀 몰랐어요. ‘해보면 되지’, 그때는 아기가 세 살이니까 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해보지 뭐,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6)

#### 나. 차별, 편견 없애기 - ‘차별과 편견의 문제 심각성을 느껴’

연구참여자들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문화 차이로 인해 많은 오해와 차별을 경험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받는 아이들도 있다는 말에 자국의 문화를 알려 한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강사 자국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강사양성과정을 시작했다. 이는 연구참여자 마음속에 차별로 인한 상처가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국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자녀에게 다문화강사라는 엄마의 직업이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받게 되었다. 다문화이해강사라는 직업이 편견과 차별에 대한 방어가 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시어머니의 오해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자국에서 오는 다른 사람들도 문화 차이와 오해로 인해 자신처럼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돕고자 다문화강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아, 여기 우리 내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알려주려고 우리... 네... 문화,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 결혼 나왔을 때는 아, 우리 시어머니가 ‘아, 너네 나라에서 딸 팔아먹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소리가...” (연구참여자 1)

“처음에 한국어 배우게 됐는데 거기에는 제 반에, 기초반 맞는 반 없었어요. 이제 중급반, 고급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제 반에 필리핀 엄마들 많아요. 그런데 필리핀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차별 받는 거는 너무 심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연구참여자 2)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애들이 또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놀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내가 이거 활동을 하는 게 아이에게 낯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도전해봤어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3의 경우 자국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자국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다문화강사교육에 참여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지만 본인 주위에도 미얀마 출신의 다문화강사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2의 경우도 페루라는 나라가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자국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문화강사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희 미얀마라는 국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는 많습니다. 저는 ‘나는 미얀마에서 왔다’ 라고 하면은 미얀마는 어디인가? 네,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아, 태국 바로 옆에 있다. 방글라데시와 가깝다. 그렇게 소개해줘야 미얀마라는 나라를 알더라고요. 3, 4년 전에, 네, 그래가지고 나라를 알려야겠다. 네.” (연구참여자 3)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페루에 대해서 좀 알고 이해하게 되면 내가 한국에서 살 때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도 차별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연구참여자 2)

#### **다. 자존감 높이기 - ‘나도 강사라는 자부심’**

다문화가정이라는 사실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자신을 위축되게 만들었다. 주변의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위축된 자신의 모습과 불편한 상황에서 다문화강사라는 직업은 주류에서 배제된 소수자인 ‘이방인’의 인식에서 벗어나 ‘의미적 존재’가 되기 위한 선택이며 자신감을 갖고자 하는 바람의 발판이었다.

“다문화강의하면 저도 감사잖아요. 아무래도 주부보다 엄마로서든 와이프로서든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서... 하하하...” (연구참여자 4)

“처음에는 저도 다문화가 좀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엄마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연구참여자 9)

## 1.2. 교육의 만족도 및 바람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시간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정에 대한 명칭도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또는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등으로 불리고 있다. 지역과 기관에 따라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10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으로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을 받은 참여자도 있는 것처럼 다문화이해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간이나 교육프로그램, 보수교육 등이 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되며 그 명칭과 교육내용 및 교육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이 제도화되어있지 않다. 김현민(2014)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전문가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교육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관련 교육과정이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표준화된 전문가 양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교육이나 결혼이민자들과 눈높이가 다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가. 교육 프로그램의 아쉬움 - ‘좋은 것도 있고 필요없는 것도 있고’

교육내용은 발음교육을 기본으로 대상에 따라 쉽게 설명하는 방법과 수업을 위해 PPT만드는 법, 계획서나 이력서 쓰는 법, 교구제작과 동화구연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하고있는 수업사례 등 이론 수업과 실제 수업에 활용되는 것들로 구성되었다.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자국 문화와의 비교하는 법을 배

우기도 하는데 기관마다 문화와 역사교육을 하기도 하고 역사는 따로 배우지 않아 스스로 공부를 해야 했다는 참여자도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양성과정에서의 수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그러나 매해 시행되는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에서 보수교육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강사활동을 계속하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수업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업에 대해 건의하면 다음 시간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을 해주기도 했으며 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만족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 수업이나 교구제작 방법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네, 내용마다 계속 다르게 해줬어요. 그때 저 좋아하는 말, 이런 거 뭐, 저 역사 같은 거도 좋아서, 그니까 이것도 여러 나라에서 뭐, 몇 나라에서 배웠잖아요. 그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많이 괜찮고요.”  
(연구참여자 1)

“어렵던 거는 아, 많았죠. 물론 거기에서는 한국어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배우고... 아, 역사. 다 이게 한국의 역사, 문화 그런 쪽으로 안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아, 예를 들면 한국의 국가 애국가 그런 거,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연구참여자 2)

“한국문화도 배우고 북아트, 동화구연, 컴퓨터, 예, 다 여기 교육에서 받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대학 나오고 여기서 한국 애들 어떻게 맞춰야 하나 고민 좀 있었는데 동화구연도 배우고 손유희도 배우면서 아, 여기서는 교육 이렇게 하는구나. 유아심리, 어떤 어린이집 과정 뭐 이런 거 다 배웠으니까...” (연구참여자 10)

“어떨 때는 거의 비슷한 거도 있고, 어떨 때는 얘기해요. 작년이랑 같고...”

지루하고...” (연구참여자 5)

“좀 길고... 음... 좀 재미가 없어요... 재미 없다고 하나?” (연구참여자 9)

#### 나. 교육내용 이해의 어려움 - ‘한국어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연구참여자들이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교육을 받을 때의 이해도는 교육 내용적인 면과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으로 나뉘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게 되면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면에 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수준 등 지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수준 차이가 많으며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한국어에서의 부족한 영역과 교육에 대한 이해도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 각자의 몫으로 남는 어려움이 있다. 또 한국말 이해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자신이 받는 교육이 자신이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회의적이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못 알아듣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중략)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연구참여자 9)

“한국어 공부 좀 하고 여기 와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그랬고, 그래서 교육받을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10)

“아, 이주여성 위해서 오신 선생님들이라서 좀 어렵다고 하면 말을 좀 바꿔서 질문을 잘, 잘해서 가르쳐 주시고...” (연구참여자 11)

#### 다. 부족한 역량채우기 - ‘나라별로 세세한 지도가 필요’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을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통해 보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각각의 역량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관한 수업 요구도 다양했다. 자연스럽게 다채로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업기술에 관한 부분과 수업내용에 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특히 각 나라의 역사나 문화의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들은 모든 강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각 나라 별로 나누어 전문 선생님이 세세하게 지도해주면 본인들이 학생들에게 깊이 있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국의 역사와 문화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세계문화수업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수업 요구도 있었다. 세계문화수업을 본 수업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하고자 하는 수업내용을 담기에는 개개인의 역량도 부족하고 주어진 시간도 짧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저희 프로그램, ppt자료 만들 때 조금 쉽게 저희한테... 아, 이런 자료 쓰면 어떻게 프리젠테이션 잘 할 수 있다. 그 ppt 만드는 방법 안 쉽고...” (연구참여자 3)

“제가 진행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싶어요. 다문화수업이 왜 필요하는 지, 지금 다문화... 문화차이 말고 그냥 세계문화, 글로벌 수업 받고 싶어요. 왜냐면 아마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제가 일본사람인데 이제 일본사람이라 하더라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잘 몰라요. 지식도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뭐 선배나... 선배같은 사람이 오셔서 해주면 더 빨리 이해가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하고...” (연구참여자 9)

### 1.3. 비전과 한계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교육 후에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하면

서 경제적인 도움과 강사로서의 자존감이 향상될 것을 기대했다. 한편, 연구 참여자 2처럼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의 일방적인 이해와 적응보다 상호문화이해의 필요성 때문에 지원한 사례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 또는 일방적 이해에 대한 강요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이었다.

“우리는 여기에 와서 저희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는 나라, 우리도 이해해주면 문화에서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필요하다는 생각 들어서...” (연구참여자 2)

“우리 학교 가면 우리자녀도 있고, 다른 나라의 자녀도 있고, 그런 자녀들이 괴롭힘 당하거나 또는 왕따하거나 모, 그게 싫었죠. 그래서 우리 자녀도 도와주고 옆에 친구들이 어 잘, 서로 잘 이해하고 잘 놀 수 있게 하는 역할 하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4)

### 가. 진로고민과 선택 - ‘돈 벌기보다는 자부심으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되는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다문화강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로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는 강사는 많지 않다고 한다. 강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이 없고 실제 수업과 연결해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에 대한 기대를 갖고 힘들게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했지만 중간에 강사활동을 포기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립보다는 자존감을 갖고 활동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강사들도 있다. 경제적인 만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을 조율이 가능해서 아이를 보살피면서 할 수 있는 일로 만족하고 있다.

“나도 너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두 명 소개해서 여기 했어요. 근데 이 일은... 이 다문화강사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방학 때도 일 없고

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배웠지만 그래도 그만뒀어요. 안 해요.” (연구참여자 1).

“다문화강사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양성하고 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취직하고 취업하고 활용하는 강사 많지 않아요. 아마 관리자 없으면 회원들, 강사들이 나가서 활동하기 어렵고 또는 돈 많이 안 버니까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거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연구참여자 4)

“이거는 돈으로 벌려고 생각하면 차라리 하지 말고, 이거는 돈 많이 안 벌어요. 나중에 계속 강의 많으면 좋아요. 자기 능력이나 뭐... 자부심? 키우고 싶으면 자존감? 키우고 싶으면 그거 하는 거 좋고 특히 애기 키우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애들 조금 크다 보니까 애들도 봐줘야 하고 집안일도 하면 시간 많지 않아요. 아는 동생이 ‘언니, 강사 괜찮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배우고 해보니까 나도 애들 키우지만 스트레스도 풀리고 애들이랑 조금만 지내도 시간 금방 가고, 좋은 시간 보내지만 돈도 벌고... 그렇게 괜찮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5)



## 2. 다문화이해강사 교육활동경험 사례

두 번째 영역에 따른 다문화이해강사의 교육활동경험에 관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이해강사로 교육활동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과 느낌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 따라 ‘선생님의 무관심과 무시’,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 ‘수업에서의 어려움’, ‘강사라는 자부심’, ‘가족의 지지’, ‘목표의식이 생김’, ‘교육에 대한 신념’, ‘보람과 성취감’, ‘소통과 공감하기’, ‘제도적인 지원부족’, ‘정보공유 및 연대감 필요’라는 하위주제를 도출한 후 ‘교육활동에서의 반응과 태도’, ‘교육활동 후 변화와 교육활동의 의미’, ‘강사활동의 어려움’으로 주제를 생성하여 ‘다문화이해강사 교육활동경험 사례’의 영역으로 범주화시켰다.

### 2.1. 교육활동에서의 반응과 태도

다문화이해교육은 수업 현장에서 많은 변이요인이 발생한다. 다문화이해교육은 대상자의 연령과 장소에 따라 또 배정된 수업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문화이해교육에서 가장 많이 수업을 나가는 장소가 유치원이나 학교이기 때문에 다문화이해강사는 학습대상자인 학생들보다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을 먼저 만나게 된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문화강사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가끔 선입견을 가지고 일반선생님이나 타 교육 강사들보다 낮게 대우하거나 편하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다문화이해강사는 주눅이 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담임선생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연구참여자 중에는 경력이 오래되어도 선생님들의 눈빛이 부담스럽다며 수업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였다. 한편, 오윤지(2017)는 학생들이 외국인을 자주 만난다거나 대화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어

로만 접한 사실, 또는 겉모습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하고 외국인, 외국 문화에 대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의 경우 강사들에게 무분별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서 외국인 강사들이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고정관념 속에 무의식적으로 개발도상국 출신이나 아시아 출신 외국인을 무시하는 마음과 우월감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가. 선생님의 무관심과 무시 -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영향’

다문화이해수업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담임선생님의 관심이라고 연구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선생님의 관심도에 따라 그날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참여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담임들의 태도가 다문화이해강사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다문화이해강사의 경우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발음을 꼽았는데 발음이 서투른 다문화강사에 대한 선생님들의 무시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강사의 발음을 장난삼아 따라하면서 놀리는 듯 무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어떨 때는 선생님들이 두 명이, 두 명정도 서로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정말 아주 조금 나쁜... 이 일 저희들만 해야 하는 일 아니고 우리 같이 아이들 위해 하는 일이니까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제가 수업 많이 갔기 때문에 느낀 거는 담임선생님, 어떤 태도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선생님 잘 리드하고 잘하면 애들이 얌전하고 재밌게 잘하는데 선생님이 신경 안 쓰고 하면 애들도 막 그 엉망 진창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우리가 들어가면 나가는 그런 교사도 있어요. 관심 없는 교사는 들어갔다  
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애들 집중 못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어떤... 그런 교사  
도 봤어요. 수업 중에 애들 혼내고...” (연구참여자 10)

“그...발음, 제가 아직 발음 아직... 네... 담임선생님은 저 발음 안되는 거, 선  
생님이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는 기분이... 기분이...” (연  
구참여자 1)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에서 선생님의 관심과 태도는 수업 전체의 분위기나 학  
생들 반응 유도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분위기가 괜찮고 연구참여자 스스  
로 수업에 만족감을 느끼는 대부분의 경우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담임선생님들  
은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다문화이해강사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한다.

“좋아해요. 거의 대부분 좋아하고 그리고 교사들도 그런 얘기, 어... 너무 재  
미있어요. 감사해요. 그런 말 들어요.” (연구참여자 10)

“어떤 반에 가면 애들이 다 나와요. 작년에 했는데 애들이 학년 올라갔다  
고... 애들이 너무 좋아, 왜냐면 내 나라 알려주니까... 알아서 인사도 하고 가  
방도 먼저 들어주고... 도와준다고” (연구참여자 5)

## 나.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 - ‘ 반응과 질문을 통해 효과를 가름’

다문화이해교육에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이  
다. 고등학생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의상체험 등 참여 활동에 부끄러워하기  
도 하고 소극적이지만 막상 참여하면 너무 재미있어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강사입장에서 흐뭇하고 뿌듯하다고 한다. 학생들의 반응은 아이들의 이해도  
나 흥미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반응을 통해 수업의 효과를 가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끔 학생들은 수업 도중에  
수업내용과 관련된 질문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국가

간의 예민한 문제, 선생님에 관한 개인적인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로 질문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에는 갑작스러운 질문이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당황하여 자기방어를 하기 급급했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도 터득하고 때로는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수업을 조절해 나가는 여유가 생겼다.

“페루 전통의상 알록달록 색깔이어서 아이들 ‘선생님, 그 옷 입고 싶어요.’ 말해요. 보통 고등학생들, 부끄러워서 뭔가 그냥 못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아이들 있어요, ‘입어봐, 입어봐’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저 입어볼래요.’ 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 ‘야, 너 페루 인형같다’ 하면서 애들이 서로 사진 찍고... 안 입으려 했는데 갑자기 입고 갑자기 사진 찍어달라, 이럴 때는... 와, 기대 안 했던...” (참여자 2)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반응이 있어야 아이들이 이해되고 있는지 재미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연구참여자 9)

“요즘에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처음에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지 뭐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아,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구나. 또 어떤 점에 조사를 했었던 분들이 미안마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거 맞나요? 하고...” (연구참여자 3)

“싸스나 미세먼지 문제는 초등학생부터 다 물어봐요. 이거 중국과 한국이란 제일 큰 문제예요. 초등학생부터 다 물어봐요... 처음에 당황했죠... 처음에는 그냥... 아, 이거는 나라문제니까 선생님이랑 관계없는 거예요...(중략) 배우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고... 제가 중국에 갔는데 어느 날 중국에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시기는 한국에 미세먼지 있어요. 왜 그럴까요?(중략) 중국은 땅 넓고 사막 지역 많은데 사막은 나무 심기 힘들잖아요. 그거 막을 수 없는 일이라서, 자연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 누구 잘못도 아니고...(웃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연구참여자 4)

학생들의 태도에 두려움을 느끼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스스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타협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학생들의 자유로운 태도와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한국 선생님들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성격과 자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학생들의 모습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충격의 강도에도 차이가 있다. 또 자국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비해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당혹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하기에 편하다는 양가적 감정을 보였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들의 모습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반면에 학원 숙제를 하는 모습에서 사교육의 무게에 눌린 아이들을 측은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국과 다른 한국의 입시 분위기 자국과 상반된 수업 분위기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면서도 서서히 적응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들 보면 무서워요. 나 애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다리 올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딱 수업 시간에 책상에 이렇게 하고 화장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엄청, 어쩔 때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하고 하니까...” (연구참여자 5)

“우리나라 학생들... 가만히 있죠. 음... 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한국처럼 시끄럽지 않죠... 그런 차이를 느끼는데 또 하다보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재미있어 하는구나 알 수 있어서...” (연구참여자 9)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수업하면 그냥 똑바로 앉고 선생님 소리 집중해서 듣고, 손도 이렇게 똑바로 하는데 근데 한국 와서 애들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연구참여자 10)

“다문화수업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태도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자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집 푸는 친구들 있어요. 학원숙제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보면서 아, 여기 너무 불쌍하다...” (연구참여자 11)

## 다. 수업에서의 어려움 - ‘발음 똑바로 못하고 재미있게 못해서’

수업에서의 어려움은 물리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수업하러 갈 때 초행길이라 길 찾기가 힘들다거나 본인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국기, 전통의상, 모자, 장난감 등 교구나 교재가 무겁고 자료구입의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구입과정의 수고로움을 외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업에서의 자신의 역량 부족을 꼽았다. 한국어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였으며 자신의 수업이 재미없다거나 연구참여자들이 준비한 수업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에 대해 염려했다. 또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것에 대한 걱정과 자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강사입장에서 자신의 모국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 발음... 제가 아직 발음 아직, 네... 한국 사람처럼 못하는 거, 또 뭐... 이해 안가는 거도 있고요. 아직도 똑바로 못하잖아요. 많이 하는 것도 힘들고...” (연구참여자 1)

“애들한테는 더 흥미롭고 쉽게 설명해야 하는데 저는 활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금 재미있게 수업해야 되는 데 재미없는 거 같아요. 만들기 할 때도 좀 부족하구요. 동화구연도 조금 더 귀여운 모습으로 해야 하는 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아이들이 내 말 좀 잘 알아듣나,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하면 내 나라에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모 열만큼 열심히 공부해도 애들 핸드폰에 찾으니까... 옛날 안 좋은 거 아니고 좋은 거만 얘기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우리나라 좋은 인상 주고 싶은데 아이들 선생님 나라 나쁘네, 여기 다르네, 그

런 거 있을까봐...” (연구참여자 5)

“수업 준비를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설명하는 거 내용도 맞는지 안 맞는지 많이 고민이에요.” (연구참여자 11)

## 2.2. 교육 활동 후 변화와 교육활동의 의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당당함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스스로 당당해진 것도 있지만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외국인인 엄마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함을 느꼈던 것에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쑥스러워 하지 않고 엄마가 다문화강사임을 알린다고 했다. 아이의 태도를 보면서 연구참여자도 본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동과 태도가 당당해졌다.

### 가. 강사라는 자부심 - ‘교육활동으로 인해 바뀐 시선’

다문화강사활동을 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생활적인 면에서도 배웠다. 남편이나 가족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또 나라를 알리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 드러내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가족과 주위 사람들도 다문화이해강사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시선이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외국 사람으로서 더 당당하고 단단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거 활동 있어서 고마운 마음 있고, 이런 거 활동 있어서 내가 국적까지. 내가 혼자서 서류 다 따고, 제가 아~ 이런 거 있어서 여러 가지 알게 되고. 내가 교육적으로 아, 이렇게 이런 쪽으로 했구나, 여러 가지 배웠어요.” (연구참여자 2)

“제가 한국어 통역으로만 일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나라를 알리는 것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연구참여자 3)

“애들이... ‘우리 엄마가 다문화강사이다.’ 뭐, 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연구참여자 4)

“어... 시어머니도 제가 다문화강사 전에는 그냥...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외국인며느리니까... 네...” (연구참여자 6)

“단단하게 됐다? 나는 외국 사람이라 약간 숨기는 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이거는 당당하게 할 수 있고 외국 사람이니까 이런 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11)

#### 나. 가족의 지지 - ‘당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 친지들은 연구참여자들의 다문화강사 이해강사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강사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 특히 남편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던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고향가족들도 한국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강사활동을 자랑스러워하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중국에서도 존경스러운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족들의 지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이 되었다.

“애기 아빠는 그냥 모 ‘여러 가지 열심히 많이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많이 밀어주죠. 애기 아빠는.” (연구참여자 1)

“처음에는 남편이 좀 걱정스럽죠. 근데 제가 수업할 때 남편이 한번 같이 참여 했어요. 그거 보고 ‘아, 좋구나, 앞으로 어떤 점은 고치고 더 올라갔으



면 좋겠다.’ 지지를 많이 해줬어요.” (연구참여자 3)

“중국 가족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거 자랑스러워해요. ‘학교 가서 강의하는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중략) 강의가 없을 때는 왜 강의없어? 관심도 갖고... 또 시누이들이 내가 강사하는 거 좀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연구참여자 4)

“가족들 모두, 일하면 더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때 저는 길이... ‘유치원 가는 길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남편같이 아, 일주일 전에 활동 시작할 때, 저는 유치원 가야 돼요. 그러면 남편도 도와주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같이 미리 가고 그러면 ‘아, 이렇게 와야 해요.’ 이렇게 도와줬어요.” (연구참여자 7)

#### 다. 목표 의식이 생김 - ‘다문화이해강사를 하면서 바뀐 꿈’

다문화이해강사로 교육활동을 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아갈 것이기에 한국에 자신의 나라에 대해 알리고 싶어했다. 그것은 한국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과 동시에 자신이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인정받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로로 느껴졌다. 다문화수업과 연계해서 다문화박물관을 열고 싶다는 바람, 또는 자국의 박물관을 열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으며 언어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인 강사로서 단단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다.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이 성격을 변화시키고 연구참여자들에게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꿈을 갖게 했으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열정의 밑거름이 되었다.

“원래는 좀 쑥스러웠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근데 하다보니 저도 쑥스러움이 나가서 저 많이 활발해졌고 일에 대한 열정감 많이 생기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한국에서 내 나라의 박물관 열고 싶어요. 내 나라 이미지 건물도 만들고 우리나라 역사 볼 수 있게... 이제 사람들 오면 얘기하고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연구참여자 5)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센터 만들어가지고 어... 그냥 힘들어하는 엄마들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엄마들 모여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봉사 같은 거 꿈꾸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8)

“예전에 꿈이 저 애들 잘 키우고 애들 꿈이 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다문화강사 활동하니까 꿈이 바뀌었어요. 올해는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서 이 활동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다문화이해강사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1년까지 평균 7년 이상의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다문화강사들이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난 후, 또는 1~2년의 짧은 강사활동 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연구참여자들이 다문화강사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 대한 각자의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문화강사로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있기 때문이며 서로 도와주고 함께 받을 맞춰나가는 동료의 존재 때문이었다. 이들은 다문화이해강사로서 자신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단지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희망하고 있다.

#### **라. 교육에 대한 신념 -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다문화이해강사를 하면서 참여자들은 생각이 많이 변했다고 한다. 초기에는 다문화이해강사로서 자국 문화를 알려야 하는 주어진 수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업을 하고 많은 대상자를 만나면서 교

육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이 생겼다. 서로 같은 인간으로서의 공감, 인권차별의 문제,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자신의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기대. 연구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의 중심에는 인간애와 상호이해의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저 외국인보다는 저도 인간이에요. 그거 전달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

“처음에 시작할 때 나라의 문화를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보면 인권의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인권차별이나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뭐 그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되었으면... 지금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중도 입국자녀 애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자녀를 위해서라도...” (연구참여자 3)

“요즘은 다른 나라 문화 이해보다 음... 세계 문화, 다문화수업이 왜 필요한지 이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6)

“학생들과 같이 얘기하는 거, 저는 혼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질문도 계속... 그러면서 같이 배우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7)

“어떤 친구는 피부가 까매가지고 수업할 때도 들어가자마자 애는 엄마가 이런 나라야. 저런 나라야. 저는 제가 들을 때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요. 그런 거는 내가는 괜찮은데 들은 사람은 속상할까 봐... 같은 사람끼리 지구에서 사니까 이 사람의 색깔, 피부색이라던가 이런... 음... 다른 나라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장애아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그냥 모두 친구 처럼 지내면 좋겠다는 그런 거는 꼭 말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8)

#### **마. 보람과 성취감 - ‘자국과 한국을 연결해주는 역할’**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가볍게 대충 알고 있던 자국의 문화들을 깊이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성취감을 갖는다고 했다. 강사의 고향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문화를 배우며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강사의 나라에 대해 질문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며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자국과 한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신이 강사로서 자국을 알리고 있다는 것과 다문화 강사활동을 통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에 본인이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는다.

“처음에 모른다하는 친구들도 와 가지고 저한테 일본 이야기 들어가지고 좋았다든지 다른 질문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관심 보여요. 내가 조금 대사관? 같은 느낌이 있어서... 또 오해 같은 거 말해주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11)

“저도 부인으로서 한국 와서 이런 강사활동하는 거 사실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고향 알려줘서 좋고 또 강사료 벌어서 우리 아이 교육 시키는 것도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10)

“뿌듯해요. 한 명, 한 명, 아는 사람 더 많아졌구나. 특히 모르는 학교 가면 이 학교도 우리가 가서 알려 줬구나...(중략) 이렇게 알려주는 보람이 있구나, 저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4)

“뭔가 두 개의... 이렇게 두 개 이을 때는 커넥션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 네, 이어주는 것뿐 아니라 이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보람을 느껴요.” (연구참여자 2)

## 바. 소통과 공감하기 - ‘소통과 공감을 위한 연대활동’

소통과 공감은 다문화이해강사들에게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이해강사들은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이들에게 연대감을 갖게 했다. 가벼운 수다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수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며 협동조합을 통해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와 학교와 강사 연결로 수업도 소개받고 있다. 다문화이해강사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지만 강사들과의 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활동하면서, 예를 들면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거기 가서 만나는 강사들... 네... 강사들 만나서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제가 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도움 됐어요.” (참여자 2)

“그냥 단순하게 강사활동하면서 받은 것보다 이거 하면서 몇 년 동안 강사들이 모여서 서로 받아들인 거 문화나 지식이 많아진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4)

“그래도 우리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6)

“이주여성, 이렇게 어렵게 외국에 와서 공부하고 강사활동 시작했는데 어디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거 아니고 강사 활동하는 데 얼마나 어렵겠나. 이거 사업자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만들자...(중략)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자. 그 목적 하나였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사도 그만둬야 하니까...” (연구참여자 10)

### 2.3. 강사 활동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강사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는 학교나 유치원 등 기관에서 수업 요청이 들어올 때만 수업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학교와의 연계도 어렵다. 또 다문화학생이 없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자신의 기관에서는 다문화이해교

육이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다문화교육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고 한국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다. 다문화이해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한국 사회에 제도적으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모든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시간 정도의 일회성 교육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형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 따라서 내국인의 인식개선은 물론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어떤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우리 다문화 아이 없어요, 아이 없다고, 다문화 수업 필요없다고...(중략)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다문화 아이들, 물론 다문화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고, 한국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고...(중략) 정말 인식이 바뀌어야... 아~(한숨).” (연구참여자 6)

“다문화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있기는 해요. 그 민속촌에 가거나 다문화 엄마들 모여서 진로에 대해서... 중학교 가는 거 상담해주는 거.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거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뭐 엄마들 중요하지만 엄마들은 뭐 마음먹고 외국에 오는 거 선택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쪽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연구참여자 9)

### 가. 제도적 지원의 부족 - ‘수업의 효율성과 지속적 교육을 위해 필수 교육으로 지정 필요’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해 전국의 다문화강사들이 다문화이해교육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강사지원을 위해 시작한 동아리 모임이나 협동조합을 유지하고 운영해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이

해교육 강사활동을 위해서 또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문화이해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강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지금 걱정되는 시기예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원래 3월에 강의 시작하는데 올해 아직까지 수업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조합에서도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나갈 돈, 월세 이런 거 우리 다 고민 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강사활동은 계속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나중에라도 수업 신청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정해지는 강의, 일정하게 학교에서 몇 시간 수업 꼭 해야 하는 거 지정되면 아이들도 도움되고 강사들도 안정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참여자 4)

“문화 알려주는 것보다 편견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 편견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 지...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만날 테니까 도움이...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두 번, 세 번, 몇 번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6)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 예산이 이런 다문화이해교육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교육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전문강사 양성하고 강사활동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프리랜서로 하고 있고, 이런 직업 이렇게 4대 보험도...(중략) 직장생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10)

## 나. 정보공유 및 연대감 필요 - ‘함께 하면서 위안받아’

연구참여자들은 강사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삶에서 느끼는 외로움 등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난 동료와 함께 나누며 동질감과 동료 의식으로 위안을 받는다. 자국 춤을 배우는 동아리 모임이 단합하여 다문화강사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위안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의 고민과 아이디어도 나누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소통의 장이며 사회를 향해 열린 또 하나의 세상이다.

“여기 함께 살고 있는 우리나라 친구들과 동아리 모임 있어요. 우리나라 춤 배우는 거... 아이디어도 함께 나누고 같은 말 쓰고 고민 같은 거, 학생들 반응도 같이 얘기해요.” (연구참여자 6)

“회의도 하고 수업 추천도 해요. ‘이거 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또 학교에서 있었던 일 걱정하는 거 위로해 주고... ‘선생님, 저도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무슨 학교 뭐가 안 좋아요. 컴퓨터가 잘 안 돼요.’ 이런 거도 얘기하고...” (연구참여자 7)

“보통 개인적으로 수업하지만 팀이랑 같이하는 것 있어요. 동아리 팀으로 가면 축제처럼 교실 전체에서... 하루 애들 수업 안 해요. 혼자 가는 것보다 든든하고 좋죠.” (연구참여자 5)



### 3. 다문화이해강사 문화매개경험 사례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가장 깊이 다루고자 했던 핵심주제인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문화에 대한 질문에서 도출된 ‘문화에 대한 생각’, ‘다문화수업의 중요성’, ‘문화매개자의 역할’, ‘안타까움과 자기반성’,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 ‘애국심과 자부심’, ‘문화 차이’, ‘이해와 인정’,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미’ 라는 하위주제에서 ‘문화 인식’,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한국문화이해’ 로 주제를 분류한 뒤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 사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 3.1. 문화 인식

‘문화’ 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기에 문화에 대해 질문하면 일단 어렵다고 느낀다. 연구참여자들도 문화에 대한 질문에 난감한 표정을 짓거나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누구나 문화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문화가 무엇인지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란 생활하면서 그 사회에서 느끼고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도 다문화강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문화에 대해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하면서 자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처럼 옛날에 왕들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궁금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모습으로 살았고 그것들에 관심 있었어요...(중략) 어, 이 나라랑 우리랑 어떻게 하는 거는 비슷하네. 다른 나라들과 연결되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 보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5)

“저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한국 문화도 이해했고 또 여기서 어떻게 살면 더 좋고 또 어떻게 애들 키우면 좋아요.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뭐 하면 좋아요. 그것도 알게 돼서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연구참여자 5)

### 가. 문화에 대한 생각 - ‘문화에 대해 의식하거나 생각해본 적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듯이 연구참여자들도 문화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알게 되는 문화와 생활하면서 익숙하게 몸에 밴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문화란 일상적인 생활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어 익숙해지는 것처럼 특별히 문화에 대해 의식하고 생각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강사활동을 하면서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인식하게 되었다. 행사를 치루거나 특별한 날이 되었을 때 그날이 왜 특별한 날인지 모르면서 행사를 치루곤 했는데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행사의 의미와 역사를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관심 없던 문화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국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어서 ‘너무 좋다’ 라고 입을 모았다. ‘누군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우리나라에 대해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다’ 는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연구참여자 7의 목소리에서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졌다.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만 그런 것만 배우는 거구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맨날 그렇게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연구참여자 1)

“관심이 있는 거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저 외국에 있을 때 사람들 너 나라 대해서 물어보고, 너 먹는 거 물어보고... 그러면 제 나라 소개하고 싶어요. 제 나라 이렇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안에서 내 나라도 좋은 나라라서 그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연구참여자 7)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나는 너무 좋죠. 만약에 이 다문화강사를 안 했으면 그냥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이거 알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8)

“어... 그냥 그날이 오면 그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게 문화가 시작 풍경? 풍습? 그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고 이유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런 것도 배우게 되잖아요.” (연구참여자 9)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문화와 실제 생활 중에서 아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문화, 왜 이런가? 그거 깊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저는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가 문화라는 거 알아요. 커피 하나를 마셔도 다 다르고... 예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를 알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11)

#### **나. 다문화이해교육의 중요성 - ‘다문화사회에서 공존과 상생을 위해 필요’**

다문화이해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받는 차별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오해와 불편한 시선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으로 다문화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다문화사회에서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개선은 어릴 때부터 심어야 나중에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어른 되면 어떻게 심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옛날 역사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아, 우리 최고다, 당신들은 최고 아니다. 내가 지배? 지배한다.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문화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 배우면 좋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6)

“다문화라고 하면 그 자기랑 다르다는 그 여기 안 보이는 벽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없어지기 위해서. 다문화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 느낄 수 있게...” (연구참여자 9)

“애들이 사실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인, 그러니까 공무원, 그리고 정말로 다문화가족 시부모님들. 네, 그리고 학부모들... 그러면 대부분 전체로 성인들이죠. 다문화교육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공무원이나 교사한테 받는 차별이 다문화 여성들한테 상처 줘요.” (연구참여자 10)

“국제학교 만든다고 교육청에서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대한민국 왔으면 한국어 배워야지 무슨 이중언어? 다른 언어 하지 말고 한국어 배워!’ 전문가들, 담당자들 이렇게 말하니까 아, 이 사람들 말로 다문화, 다문화 이게 받아주는데 실제로 아니구나.” (연구참여자 10)

#### **다. 문화매개자의 역할과 의미 - ‘서로 다른 문화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역할이 자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자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자 문화로서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줌으로써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만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를 알려줌으로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때 쉽게 적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매개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과 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은 다문화시대잖아요. 학교 가서 보면 우리 자녀 보면 다른 나라의 자녀도 많이 있고 그런 자녀들은 괴롭힘당하거나 왕따 당하거나 그거 싫었죠. 우리 자녀도 도와주고 옆에 있는 친구들 서로 잘 이해하고 놀 수 있게 하는 역할...” (연구참여자 4)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문화강사님도 똑같아요. 다 중요한 역할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 지금 다문화시대라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우리는 원래 무슨 나라 생각하면 그러면 무슨 이미지 그리는 게예요. 아, 이 나라예요. 그거 밖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 가르치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중략) 이렇게 더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그림... 그러면 아이들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언어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는 거. 그 나라 언어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그거 있으면 좋아요.” (연구참여자 7)

“저는 항상 자신을 기억해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한국에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에 내가 이런 거 한국 학생들한테도 다른 데 가서 충격받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우물 안에 개구리 속담 있잖아요. 이거 개구리 안되게 하는 역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냥 하는 일 아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6)

“한국, 다문화사회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런 편견, 차별 많이 있어요. 저희들 역할은 실제로 그 다문화사회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 교육에 적

극 참여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 이런 편견, 차별 없애는...”(연구참여자 10)

### 3.2. 자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국에 있을 때 문화에 대한 생각, 특히 자국의 문화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활동을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고 한국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자국 문화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다. 몰랐던 자국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거나 대충 알고 있었던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자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의 감정으로 표출되었다. 이전에는 고향 방문의 목적이 가족 친지들을 만나 친교를 나누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유적지 장소를 찾고 역사의 현장을 탐험하게 되고 자국을 알기 위한 것으로 고향 방문의 목적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역사적 배운 거 문화적 배운 거만... 근데 이 일 하면서 정말 제 나라에 이런 거 이런 일 어떻게 일어났을까 조사하게 되고 또 제대로 전달하고 싶고... 그렇게 관심 가지게 됐어요...(중략) 관심 가지면서 애국심...(웃음) 애국심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한국에 전달하는 것이 자랑스러움도 있고요.” (연구참여자 2)

“먼저 문화라고 하면 먼저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안 배웠었고 제 본국이지만 안 배워서...” (중략) 무의식적으로 살았으니까 몰랐습니다. 솔직히...” (연구참여자 3)

“우리나라 세계 7대 불가사의요. 그거 피라미드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진짜 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원래 비디오만 보고 사진으로 이렇게... 아. 저도 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제가 해보는 거 그걸로 전달하면 좋아요.” (연구참여자 7)

## 가. 안타까움과 자기 반성 - ‘자국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

연구참여자들은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집중해서 탐구하고 한국문화와 비교하면서 역사의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적으로 한국처럼 독립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긴 세월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한 자국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한다. 오랜 식민지 생활 동안 자국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독립투쟁과 함께 끝까지 문화와 언어를 지켜낸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며 앞으로 자국의 언어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문화매개의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자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충 알고 있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자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에 대해 모르고 지낸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국에 훌륭한 문화가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삼일운동, 한국에 이렇게, 어떻게 됐을 때 알게 된 후에 ‘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300년 동안, 이렇게 스페인한테... 왜 이렇게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 이렇게 왜 이렇게 힘 안하고 안 모이고... 그래, 오랫동안 원래 우리나라 문화 많이 변했어요. 사라졌어요. 거기에 언어도 그렇고... 현재에는 스페인어 쓰고 있지만 원래 그 언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타까운 마음 있어요.” (연구참여자 2)

“그냥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대충 대충 뭐 알고 있는 거... 근데 자세하게 공부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치첸이사’ 세계 7대 불가사의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제 그런 거 알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좋은 거 뭐... 많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7)

## 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 - ‘우리도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

연구참여자 3은 처음에 정부에 대해서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지만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을 준비하면서 자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고 한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을 모델로 해서 배워야 할 점을 얘기한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자국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게 했다.

현재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연구참여자 2의 경우도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하며 잃어버린 언어에 대한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 오히려 모국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지만 모국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역사를 알아갈수록 모국어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자신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 연구참여자 2는 앞으로 언어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저도 처음에 정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되었고 아,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 지금은 어떻게 겪고 살고 있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있구나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얼마나 더 노력하면 우리나라에서 좋아질 수 있구나.’ 그런 거 비교를 하면서 ‘내 나라에 가면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거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3)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페루~페루언어 있었다면 왜 스페인어 써요? 어, 저는 그래서 왜 나는 페루언어 안 배우고 스페인어 배우게 됐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아~우리나라 언어들, 얼마나 소중한 언어들, 더 관심갖게 되는 거예요. 그 교육 중에 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활에 대해 알게 됐고 페루, 해안지역, 산악지역, 산림지역에. 그러면 올라갈수록 다 다르게 문화, 언어, 페루에서 크게 차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페루에서 스페인어 쓰게 되고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언어를 찾을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연구참여자 2)



#### 다. 애국심과 자부심 - ‘결코 가볍지 않은 역사와 문화’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교육을 하기 위해 자국의 문화를 공부하게 되었다.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면서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고 관심의 깊이 만큼 자국에 대한 애국심도 깊어지게 되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sup>16)</sup>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모국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 3은 비록 경제적으로 아직 가난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갈수록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실감하며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우리나라 알려줘야 하니까... 저는 역사 같은 거 좋아서 역사 많이 공부하는 거구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저희가 불교국가인데도 ‘다른 종교들이 많이 섞여 있다. 예전에 영국식민지 때 어떤 사람들 들어왔다.’ 모 그런 걸 자세한 이야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료 찾으면서 자세히 알게되고 음식이 어디에서 발달됐다. 그런 거... 우리나라 문화를 알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죠...(중략) 불교유적지 같은 거 예전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 아, ‘우리나라를 가난의 나라라고 하지만 역사와 문화는 가난하지 않구나’ 라는. 네, 자부심도...” (연구참여자 3)

### 3.3. 한국문화이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20년이 되었고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을 거쳐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한 경력도 평균 8년 이상 되었다. 다문화이해강사 경력이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강사도 있지만 다문화강사 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이 넓어지고 접촉과 경험이 많

---

16) 파커 J 파머 (2014)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아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또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관습에 따라 문화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나라마다 다른 문화에 대해 존중하며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빨리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양분되었다.

“한국인들... 애국심도 많고 뭔가 발전적으로 좋은 쪽으로 빨리빨리 변화시켜 나가지만 이 시대, 한 할머니가 전에 글로벌시대 무서운 거는 한국인 많이 변한 거, 나쁜 쪽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서양문화, 서양문화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많이 들었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무섭다고 하시니까 이제 지금 이해 돼요.” (연구참여자 2)

“이 교육받고 활동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생활이 넓혀지고 더 접촉하는 면이 많아지고 지식이라도 더 이야기라도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시야가 넓혀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거.” (연구참여자 4)

“지금까지 시댁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댁에서 말하고 설명 그런 거 없었는데 활동하면서 아, 그런 뜻 그런 역사가...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알게 됐죠. ‘아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연구참여자 11)

## 가. 문화차이 - ‘한국의 불편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

연구참여자들은 처음 한국에 와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문화 차이에 대해 식습관과 높임말을 꼽았다. 식습관이나 높임말은 주로 가족 모임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가족 모임을 하면 가족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데 남자들은 모여 술 마시고 여자들은 여자끼리 일하는 피곤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화차이로 인한 편견과 오해로 불편함을 느꼈으며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또 남녀차별로 인한 문화 충격과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무관념이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어른들을 존경하는 좋은 문화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들 교육에 치우쳐 연세 많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문화가 원래 한국 문화인지를 반문하기도 했다.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자녀들의 인정보다는 교육에 치우친 한국사회의 모순을 체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과 다른 문화도 있지만 비슷한 문화도 많아서 살다 보면 문화 차이를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때는 또 가족들이 싸우기도 하고 뭐 문화 아무래도 문화 차이도 있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갈등 많이 생기고 시댁이랑 갈등 많이 생기는 경우 발생했어요. 옆에 사람 뭐라고 할까 봐 두려움도 있고... 아, 이거는 아닐 것 같아서... 다른 나라도 살아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할까...” (연구참여자 4)

“제가 러시아 여자니까 우리 사회주의. 내가 그때 남자 여자 똑같아요. 네, 여기는 엄청. 그때는 18년 전에 남자는 높은 자리에 있고 여자는 밑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쇼크였어요. 또 사람들이 이름 부르지 않아요. 이름 부르지 않고 호칭으로 이것도 힘들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당신이라고 부르면 이것도. 아, 예의없는 거야. ‘그쵸?’ 제가 어느 정도 한국어 배웠는데 근데 호칭 때문에... 상대방이 아 한국어 전혀 못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 6)

“한국에서는 애기교육만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해요...(중략) 성장하고 성인 되면 부모님 보통 연세가 많은데 스스로 살고, 그냥 자기만 잘 살고... 나만 잘 살면 돼... 근데 한국문화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연구참여자 8)

“저 한국에 와서 근데 기계나 컴퓨터 뭐 이런 거는 발전했지만 사람은 아직 발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덕성... 쓰레기를 길가에 뭐 그냥 버리거나 그냥 어디에나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소리 지르거나... 일본은 어릴 때부터 그... ‘사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감

정 그대로 나오는 분들을 많이 봐 가지고 처음에는 충격받았어요.” (연구참여자 9)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많아요. 뭐 식사할 때 예절, 아빠 안 앉으면 식사 안 해요. 아빠 올 때까지.” (연구참여자 2)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 한국에서 외국 사람 당당하게... 아직도 그런 사회 아닌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1은 다문화이해강사를 하면서 주변에서 문화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가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사례로 태국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워서 경찰서까지 갔던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 태국은 밥 먹을 때 두세 가지의 반찬만 해서 먹고, 한번 먹은 것은 다시 안 나오는데 한국은 식사 때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거나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먹을 만큼의 양을 만들어놓고 먹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르신들 중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태도가 필요하다.

“며느리가 찬밥 같은 거 계속 냉장고만 있는 거 자꾸 버려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아까워 왜 자꾸 버릴라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화 차이. 문화 차이 때문에 이해 안 가는 거. 그래서 싸우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밀어버리고 싸우고... 그래서 경찰서 갔어요. 그쪽에서 여기 태국분한테도 가서 한국의 문화 이렇게 있다 하고 ‘아 태국의 문화 이렇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중략)

“어르신들은 너네 집에 냉장고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연구참여자 1)

## 나. 이해와 인정 - ‘각자 나라의 고유함을 인정’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초기에 문화 차이와 문화 쇼크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또 다른 문화를 배우기 전에는 본인의 나라의 문화가 가장 옳다고 믿었던 생각에서 다른 나라와의 차이와 각자 나라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문화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식민지 상황과 한국전쟁 속에서도 끈끌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한국의 저력에 대한 부러움을 갖게 되었으며 다문화시대에 다문화인에게 갖는 한국의 관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비슷한 생각도 있구나. 외국 사람도 많이 만나니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구나. 또는, 어... 이런 거는 안 좋지만 한국에서도 다른 좋은 점도 있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만 갖지 않았어요. 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 강사활동 하면서...” (연구참여자 4)

“한국 문화 배우기 전에 우리 문화, 아니면 유럽문화 가장 옳다, 좋다? 지금은 한국 문화 알아보니까 아, 이것도 괜찮다. 왜냐면 여기 역사대로 아니면 습관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꺼 문화 지키는 거야. 아,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존경? 존중... 배웠어요. 존중하는 거.” (연구참여자 6)

“우리나라의 배구선수들, 서울 올림픽에 왔어요. 그때 T.V에서 볼 때 경기 활동 하는 장소들... 와, 서울 이렇게 생겼구나...(중략) 책에서 봤어요. 한국, 전쟁이 많은 나라예요. 아주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우고... 이런 거 항상~한국에 오기 전에 항상 부러웠어요.” (연구참여자 2)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중략) 다문화가정, 아니면 외국사람... 아마 일본에서 그런 거 직업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 주신 한국이란 나라가 대단하다?...” (연구참여자 11)

#### 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미 - ‘꿈이 이루어지는 무한 가능성의 나라’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자신의 생활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 4, 5, 6, 9는 자신의 꿈이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모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실현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인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한국은 아이들을 키우기 안전하고 법과 의료가 튼튼하고 본인이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 낼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나라이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사람을 챙겨주는 것, 넘치는 정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제2의 고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변화하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본인들의 문화매개의 경험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경험이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미얀마는 제 모국이지만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동안 보면... 지난 주에 지났던 6.25 전쟁 기념날 보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행사를 보면서... ‘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들도 힘이 있고... 지난 3년 전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 ‘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나라구나’ 그런 거 보면서 내 모국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3)

“이제 한국에... 나 힘들 때 옆에 있는 거 한국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디에나 많이 있는데 내가 힘들 때 좋은 사람 많이 옆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 마음 따뜻해요. 맘이...” (연구참여자 5)

“한국에서 역사는 아직까지 자극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복을 사

람들이 입고 다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음식을 보면 예술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관습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고향은 러시아지만 내 집은 한국이다.’ 왜냐면 제가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한국에 살려고 해요. 열심히 살 거예요.” (연구참여자 6)

“한국사람 뿐 아니라 외국인 엄마들한테도 주변 엄마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학교 다니고... 내가 의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아들한테도 ‘엄마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당당하게 살고 있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중략) 저는, 여기는 꿈꿀 수 있는 나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나라...” (연구참여자 8)

“저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못했던 것들이 한국에 와서 다시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거 같은 느낌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4학년 대학교. 다문화강사가 되면서 대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고 가족도...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세 명 낳았거든요. 아이를. 그래서 그것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9)

## V. 결론

### 1. 요약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가 가속되면서 다인종·다민족·다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있어 다문화 이해교육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필연적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내국민의 타 문화적 수용성과 한국사회 다문화사회통합의 매개체 역할로서 인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이 자국 문화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문화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가 참여했던 양성과정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가 수행했던 교육활동의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은 어떠한가?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문화매개와 문화적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문다문화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과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으며 우리사회의 다문화교육의 실태와 인식 및 문화 다양성에 대한 연구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으며 IV장에서는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인천과 서울에서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11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에서의 경험 및 교육현장에서의 경험, 문화매개경험에 대해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작은 사례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연구(Punch, 2005)로서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의 경험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이 다문화이해교육 양성과정에 참여한 동기는 ‘시간적인 여유’ 나 ‘자국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등 각각 달랐지만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양성과정 교육 후 강사 관리시스템이 없고 실제 강사활동까지의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강사들이 많으며 다문강사 양성과정의 시간과 교육 프로그램도 지역이나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매해 시행되는 보수교육도 기관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며 내용 면에서도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정보와 교육을 원하는 강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이해강사로서 다문화이해교육 활동을 할 때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의 반응과 태도가 수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선생님들의 무관심이나 무시 등 소극적 차별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 공무원, 다문화관련 담당자 등 성인들의 다문화수용성이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통해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린다는 사명감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의 지지와 강사로서의 자부심이 자존감을 높여주어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이나 협동조합의 참여로 인한 연대감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 과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신념과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하기 전 문화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다. 다문화이해강사 문화매개경험을 통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었다. 자국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자기반성과 함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자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그동안 몰랐던 자국의 문화를 알게 됨으로써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획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도 처음 한국에 와서 문화 차이와 편견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문화매개경험을 통해 문화를 인식하고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존중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 할 수 있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문화 차이를 경험했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하면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다. 다문화이해교육강사로 자신을 성장하게 해준 한국에 대해 자신이 노력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주는 나라’ 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강사로서 두 나라의 문화를 매개하는 자신의 역할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교육활동 경험을 통하여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이 자국 문화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문화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이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주여성으로서의 한국사회 적응이나 다문화강사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역량강화 등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본 연구자의 연구는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자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 타문화를 알리는 본인들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며 강사로서 자존감을 갖기 위해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였다. 강사양성과정 이후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사회참여를 하게 되었으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회일원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이해강사 활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과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에서 같은 수업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강사양성과정 이후 강사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배출되는 강사는 많으나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강사가 많다는 것은 강사관리 제도나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사양성과정에서의 논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기대에서 나타난 전경미(201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 홍우정(2018)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지원 방안들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명분을 앞세운 중복지원이나 유사지원 등 각 부처의 이기주의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을 담당할 지원 인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달하는 깊이나 내용이 개인의 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권오현(2012)은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전문가이면서 교수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다문화 인식을 개선 시켜주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고 전문적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오윤지(2017)의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체계적인 장학을 통해 외국인 강사들의 수업 태도와 수업내용에 대한 정교한 검토도 필요하다.

연구참여자 5는 자국에 대해 과거에 좋지 않았던 역사나 문화보다는 좋은 것만 얘기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강사의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만 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나라에 대해 안 좋은 것을 알게 되고 선생님 나라가 나쁘다거나 자신이 설명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할까봐 염려가 된다고 했다. 또 연구참여자 11의 경우는 자신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많이 고민이라고 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수업에서 언급하는지, 그 내용이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적합한지에 대한 자세한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설명한다거나 강제 결혼 등 특정 나라의 풍습에 대해 그 사실만 전달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짚지 않는 것은 올바른 다문화이해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역할을 통해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편견이나 차별이 많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에 반해 학부모나 다문화가족 시부모님, 공무원이나 교사들과 같은 성인들의 차별과 무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에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다문화이해교육 문화매개경험이 자국의 문화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한국문화이해 및 타문화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인영(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모국의 문화적 사고와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한국문화와 갈등을 빚거나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 임에도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통한 문화매개경험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타문화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개개인의 경험과 학습에 따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의 가치를 갖는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문

화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전에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통해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문화매개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문화매개 경험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장하게 되었으며 자국 문화에 대한 성찰로 애국심과 자부심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의식이 변화되면서 타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이해강사들의 보다 효과적인 문화매개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강사양성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활동의 연계 및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강사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강사관리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연계자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이해강사들의 자질과 역량 차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식교육을 담당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강사의 역량과 자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전문가로서 다문화이해강사의 수준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력을 인정하면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체계화하고 수업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그에 적합한 자격 기준과 국가 차원의 자격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점점 확대되는 다문화교육과 함께 다문화이해강사도 더 많은 인원이 배출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전문화 교육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문화감수성 및 수용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성인들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연구참여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회성 교육으로는 다문화 인식개선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수업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유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이해강사들 개인의 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타문화의 이해를 돕고 문화매개자로서 두 나라의 문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문화감수성을 기초로 한 체계적인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이나 보수교육 등에서 일부 문화교육과 소양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직업윤리나 생활문화 등 일상적인 규범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가 균형을 이루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로 문화적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이해강사 개개인이 문화에 대한 진정성을 함양하고, 문화적 역량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문화매개자로서, 보다 의미있는 이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 교육활동과 문화매개 경험 사례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자국 문화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타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과정 후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다문화이해강사의 활동 경험이나 여성부에서 양성하는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과는 교육 대상 및 수업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례를 모든 다문화이해강사의 활동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대부분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상으로 지역이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로 다양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며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나 활동사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의 합리적 프로그램 기획과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역량을 위한 체계적이며 구체적 교육에 대한 연구

는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기정 (201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2), 153-168.
- 강복정, 김경아 (2018).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의 관점에서 본 교육인력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3), 63-78.
- 강희구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어려움이 다문화교육에 주는 함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영희 (2019). 다문화사회전문가에 대한 인식과 역할 제고 방안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은정 (2010).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대구 YMCA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미경 (2006).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오현 (2012).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 제고의 바람직한 방향 탐색. **다문화교육연구와 실천**, 4, 1-20.
- 김광수 (20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접변에 관한 질적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7(6), 651-660.
- 김기화 (2019). 연구방법과 학위논문 작성의 기초. 서울: 박이정.
- 김민정, 유명기, 이해선,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76
- 김병하 (2005). 장애인당사자주의의 특수교육(학)적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40(1), 1-22
- 김서영 (2017). 지역사회 차원에서 본 이주노동자와의 통합에 관한 사례연구: 경기도 A읍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267-287.
- 김선미, 김영순 (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김선미 (2000).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사회과적응에 따른 문제. **사회과교육학연구**, 4, 63-81
- 김아영 (2011). 여성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아동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심리적특성비교. **교육심리연구**, 25(4), 875-873
- 김영순 (202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 북코리아. 사회통합 총서6.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임한나 (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유나 (2010).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역량 모델구축.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자미 (2012). 결혼이주여성적응 프로그램현황 및 개선방안. 경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14).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국제 갈등 이슈와 다문화교육의 방향 성찰. **다문화 교육연구, 7(1)**, 101-129.
- 김진희, 김영순, 김지영 (2015). **질적연구여행**, 북코리아.
- 김현민 (2014).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학, 24(2)**, 36-71.
- 김효선 (2015).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 모색. **미래교육 연구, 5**, 1-15.
- 민무숙 외(2009). 다문화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지은, 지영호 (2016). **문화매개**.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신영 (2014).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과정에서의 학습경험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인영 (2010). 고학력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인식과 갈등.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대 (2017).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사례 및 발전 방안 연구 - 상호문화주의를 대안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재욱 (2013). 초등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다문화 연구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윤지 (2017). 외국인 강사 참여 다문화교육의 실태 및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난영 (2017). 국립 박물관 교육전문인력의 문화다양성 이해와 전문성 강화 방안.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수종 (2005). 소수자운동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방향. **경제와 사회, 67**, 12-38
- 이민정 (2011). 다문화인(人)으로서의 다문화강사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 (2016).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상호 문화 교육 방안 - ‘동화’를 넘어서 ‘통합’을 위한 문화 교육의 설계- **온지학회, 48**, 141-165.
- 이수한 (2019).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담론에 드러난 다양성의 의미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2012).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외국인 강사들의 참여경험 연구: 서울시 ‘교실로 찾아가는 먼나라 이웃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혜정 (2018).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실천 경험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3)**, 77-97
- 전경미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희주 임병학 (2012). 다문화조직의 문화지향과 다문화 조직성과에 대한 문화간 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유라시아연구**, 9(4), 425-448
- 정귀자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통합지원.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근 (2001). 세계화시대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과제: 한국의 세계화교육에 대한 반성적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6(1), 1-20
- 조영철 (2012).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정책 실천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환 (1999). **질적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형숙 외 (2017).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7), 644-654.
- 채보근 (2011).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정책에 한 연구 -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복, 이문웅, 김광억 (2012). **문화인류학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홍우정 (2018). 다문화이해교육강사들에 의한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1), 213-243.
-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연구소**. 9(9), 1-37
- Padgett, D. K.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서울: 나남. (1998년 원저발간).
- Parker J. P. (2014).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IVP).
- Yin, R. K. (2016).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서아영, 송민채 역). 서울: 한경사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9-18
- Guba, E. G. & Lincoln, Y.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Francisco :Jossey Bass.
- Hsia, H. C. (2008). *The Development of Immigration Movement in Taiwan :The Case of Alliance of Human Rights Legislations for Immigrants and Migrants*. *Development and Society* 37(2), 187-217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unch, K. F. (2005). *Introduction to social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2nd ed)*. J. B. Lippincott.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CA: Sage.
- Yin, R. K. (2005). *Introducing the world education: A case study reader*. CA: Sage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웹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동포투데이 <http://dspdaily.com/news>

법무부 <http://www.moj.go.kr>

위키백과 <http://www.ko.wikipedia.org>

통계청 <http://kostat.go.kr>

## 부 록

### <부록 1> 연구참여 설명서 및 동의서

#### <연구 설명서>

연구 제목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 사례연구
연구기관/ 부서 및 주소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032) 860-8383 )
연구책임자	김순혜 다문화교육학과 석사과정 010-7640-4695/feel1804@hanmail.net
공동연구자	김영순 사회교육과 교수 032-860-7867/kimysoon@inha.ac.kr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 양성과정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이 우리 사회와 결혼이주여성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 사례]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시길 요청합니다. 본 설명문은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목적, 내용, 위험(불편감),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궁금한 점이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제이주의 증가로 한국 내 외국인의 정착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이해로의 인식변화에 따른 인식개선과 다문화 이해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의 강사활동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지역사회에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다문화 감수성 증진 및 문화매개자 역할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다문화교육 강사 활동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매개경험이 우리 사회와 결혼이주여성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상호이해 관점에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연구참여 대상**

본 연구는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한 지 5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문화이해 강사교육을 받고, 2년 이상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다문화이해강사 10~15명이 참여합니다.

### **연구 참여 방법**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인터뷰는 면대면 인터뷰로 진행하며 반구조화 된 면담으로 진행합니다.

연구자는 귀하와 기관의 허락을 받고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에 참여하여 참여관찰을 하고, 현장의 분위기나 상황을 관찰하는 현지조사 방법을 진행합니다. 수업관찰 참여 시 연구자는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예의와 의무를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 **연구 참여 기간**

연구기간은 IRB 승인 후부터 2020년 한국어 하반기 수업 종료 전까지 약 4개월로 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1회에 60분~9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면담의 횟수는 연구진행 상황에 따라 1회~2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 **연구 참여와 중지**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해주십시오. 또한 연구의 참여가 연구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중지 될 수도 있습니다.

###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본 연구 참여시 예상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면담이나 수업 참관에 대해 부자유스럽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면담과 수업 참관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인터뷰나 수업 참관 등 연구 참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는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의 개선방안과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면담 때마다 소정의 상품권(문화상품권 2장)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가명), 국적, 나이, 학력, 경력입니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담 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 **연구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책임자 이름: 김순혜      연락처: 010-7640-4695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인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32-860-9158

##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자: 김순혜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석사과정)

연락처: 010-7640-4695, feel1804@hanmail.net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활동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매개경험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며 면담에 응해주신 참여자들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나 자료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무명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입니다.

연구를 위한 면담은 1회~2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면담 시간은 회당 60분~9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의 생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하기 위해 동의해주신다면 면담 내용은 녹음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녹음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참여자께서는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면담을 중지하거나 답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 나는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 ◇ 나는 면담에 응하지 않을 권리, 면담을 중단할 권리, 사생활 참여 거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 나는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이름: 서명

연구자 이름: 김 순 혜 서명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 032) 860-9158

## <부록 2> 설문지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석사과정 김순혜입니다.  
본 설문지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이해강사의 문화매개경험 사례연구>에 관한 일반적인 설문으로 추후 심층 인터뷰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와 답변은 오로지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됨을 약속합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 하거나 답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            세)
2. 귀하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의 출신국은 어디입니까?
4.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가톨릭 ④ 통일교 ⑤ 종교 없음 ⑥ 기타(            )
6.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7.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 누구입니까?
8.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⑤ 잘 모르겠다.



9.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전문대학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졸업 이상

10.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라도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함 ② 잘함 ③ 보통 ④ 못함

11. 한국어 영역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⑤ 문화이해

12. 한국어 급수는 몇 급입니까?

-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이상

13. 귀하께서는 한국인 남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 ① 가족 혹은 친척의 소개로 ② 아는 사람의 소개로 ③ 종교단체를 통하여
-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⑤ 행정기관의 주선으로 ⑥ 소개 없이 직접 알게 됨
- ⑦ 기타( )

14.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개월)

15. 한국에서 살면서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언어 ② 문화 차이 ③ 편견 ④ 가족과의 관계 ⑤ 종교문제
- ⑥ 기타( )

16. 고향에서 직업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7. 있다면 어떤 직업 활동이었습니까? (경험한 직업 활동을 모두 써 주세요)

## ABSTRACT

### A Case Study on Cultural Mediation Experience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structors for Married Migrant Women

Soonhye Kim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art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Today, the global village is rapid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ism coexist as globalization, informationization and diversification are accelerating.

As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immigration became common, the number of migrants in Korea began to increase in earnest since the 1990s, and our society has already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our population.

In our society, awareness improvement and multicultural sensibilities education that respects cultural diversity is required, and it is urgent to resolve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vitalize multicultural education to respect cultural diversity.

Marriage migrant women, as intermediaries and communicators between Koreans and migrants, are suitable for reinforcing not only the adaptation of migrants but also the receptivity and multicultural capacity of the Korea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marriage migrant women who

have completed th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instructor training program as instructors to resolv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n society,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to promote their own culture to the local communit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ole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cultural matchmaker to lead an independent life.

In response,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structors of married migrant women using human and cultural resources as a medium of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ies on what it means and how it affects the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ocal cultur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structor training course for economic help and self-esteem as an instructor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but there are no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such as differences in educational hours and overlapping educational contents by institution. In addition, many instructors give up in the middle because they are not connected to actual educational activities after the instructor training course. This is judged to be due to problems in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lack of an instructor system. To compensate fo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unified curriculum while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o establish a teacher management system and a network of instructors that can conduct educational activities in a stable manner.

Second, in order to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in Korean society, the standards for support personnel in charge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re not clearly defined and there is no system in place to

supplement the individual's insufficient capabilities. In addition to the increasingly exp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structors will also have more staff. Therefore, in order to reinforce the acceptance of other cultures and multicultural competencies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rresponding specialized education and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Third,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at discrimination and neglect still exist in Korean society, and thus, they are reducing the need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to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across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program for adults as well as education on multicultural sensibilities and receptivity suitable for students' eyes. In add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specific measures are required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structor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continuously and organically, not one-off classes.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structors have developed pride and patriotism in their own culture through their experience in culture and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and accepting other culture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systematic cultural education based on cultural sensitivity is necessary to help multicultural education instructors change their own cultural perceptions and understand other cultures and to make them actively take charge of mediating the cultures of the two countries as cultural intermediaries.

If individual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structors cultivate sincerity about culture and continue to provide systematic education for the growth of cultural capabilities, it can be expected that they will be able to perform more meaningful activities as members of a dignified society and as cultural intermediaries for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Keyword: Marriage migrant wome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structor,  
Mutual cultur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ultural medium